

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

— 柳希春의 『眉巖日記草』를 中心으로 —

李鎬洙

(밀양산업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

1. 序論

본 연구는 조선왕조 明宗·宣祖朝 文臣이었던 眉巖 柳希春의 親筆日記인 『眉巖日記草』의 建築記事 중 乙亥(1575년, 선조8년) 10월 29일부터 丁丑(1577년, 선조 10년) 2월 9일까지의 客廳 營조기록을 정리·분석한 것이다.¹⁾

지금까지 조영기록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조선시대 朝廷에서 집행한 각종 공사의 顛末을 기록한 영건의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반면 조선시대 사대부를 비롯한 民間의 주택조영에 관한 文獻의 연구는 자료의 빈곤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건축을 史的으로 연구하고자 할때 건축에 관련된 同時代의 문헌자료는 유물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축에 관한 연구의 큰 제약 중의 하나가 바로 문헌자료의 빈곤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

현재 적지않은 數의 조선시대 士大夫家가 각급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고, 이들 주택에 대한 각종 연구 즉 조영사상과 배치·평면구성 등의 공간론적 성격 및 구조적 특성 등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택 조영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헌자료가 거의 발굴되지 않아 건축주의 조영의도는 물론 건축자재의 수급, 공사기간 및 일정, 공사 종사자의 성격(工匠, 役夫, 監役人 등) 등은 실증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16세기말 士大夫家 造營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建築主가 남긴 日記를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연구대상 일기인 『眉巖日記草』에 기록된 주택내 客廳의 공사일정과 工程 및 공사 종사자의 구성, 건축자재의 수급, 조영의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그것이 갖는 住宅史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眉巖日記草』가 16세기말 지배계층이었던 양반관료³⁾의 개인일기

pp. 21.

1) 이 책에는 己巳年(선조 2년, 1569) 10월 29일부터 同年 12월 26일까지 全南 海南에 47칸 규모의 주택을 영조한 기록도 있는데, 이는 拙稿(『朝鮮前期 住宅史研究』, 영남대 박사논문, 1992) 제7장 「16세기 士大夫家 조영사례」에서 분석되었다.

2) 金東旭, 「조선시대 管撰 造營文書에 대한 개략 조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권 1호, 1985. 4. 27.

3) 柳希春은 공사중인 乙亥 12월 17일 同知中樞, 丙子 5월 2일 司憲府 大司憲에 차례로 임명되기도 사양하다가, 丙子 6월 19일 弘文館 副提學이 되어 7월 9일 上京하였다.

로 지배계층의 주택조영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는 史料的 價値를 갖고 있으나, 당시 士大夫家 造營 性格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하나의 기초적 자료로 충분히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당시 건축경제·건축사회의 조직·자재 공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큰 의의라 하겠다.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먼저 眉巖 柳希春의 年譜와 『眉巖日記草』의 史料的 價値를 살펴본 다음 일기에 기록된 客廳 조영 기록만을 발췌하여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客廳 조영기록의 정리 분석을 통해 공사 내용, 공사 종사자, 자재수급 등에 나타난 16세기 말 士大夫家의 조영성격 및 특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柳希春의 年譜와 『眉巖日記草』의 史料的 價値

(1) 眉巖 柳希春의 年譜⁴⁾

柳希春의 字는 仁仲, 號는 眉巖 또는 스스로 寅齋라 했다. 善山(慶北) 柳氏로 世世로 全南 海南에 살았다. 父는 桂鄰(號 城隱)으로 상당한 학식을 갖고 있었다. 母는 錦南 崔溥의 딸로 名門에서 태어났다.

希春은 中宗 8년(1513) 12월 4일 海南의 鄉第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배우고 커서는 新齋 崔山斗에게서 학문을 닦았다. 後에 慕齋 金安國에게 師事했다. 中宗 32년(1537) 生員試에 합격하고, 다음해인 中宗 33년(1538)에는 文科에 及第 成均館 學論·藝文館 檢閱을 역임했다. 中宗 37년(1542) 1월 世子 侍講院 說書가 되어 東宮(仁宗)을 보살피기도 했으며, 8월에는 司書에 올랐다. 다음해인 中宗 38년(1543) 2월에 弘文館 修撰이 되었다. 그해 8월 어머니의 봉양

을 청하여 특별히 茂長 縣監을 제수받아 2년 동안 外任에 나가 있었다. 仁宗 元年(1545) 5월에 大司憲 宋麟壽의 추천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와 修撰이 되었다. 얼마 되지않아 仁宗이 승하하고 明宗이 즉위하면서 司諫院 正言으로 자리를 옮겼다.

明宗 즉위년인 1545년 王室의 외척인 大尹(尹任)·小尹(尹元衡)간의 反目으로 乙巳土禍의 발단이 생기면서 이때 希春도 罷職을 당하여 鄉里에 退去해 있다가 明宗 2년(1547) 9월 良才驛 壁書의 變이 일어나자 乙巳土禍때의 被罪人들에게 加罪했다 하여 絕島安置의 命을 받아 처음에는 濟州道에 流配되었다가 얼마 되지않아 濟州道가 그의 家鄉 海南과 가깝다는 이유로 咸鏡北道 種城에 移配되어 이곳에서 19년을 보냈다. 이 기간에 그는 經書를 口誦하고 後進을 가르치는데 힘썼다.

明宗 20년(1565)에 이르러 朝廷은 文定王后가 돌아가자 먼저 尹元衡을 放黜했다. 이렇게 해서 朝廷이 清明해면서 希春은 忠南 恩津에 移配되었다. 이후 明宗이 승하(1567년)하고 宣祖가 嗣服 중일때 재차 乙巳 伸冤이 거론되면서, 希春은 盧守愼 등의 恩典를 입어 放免되면서 成均館 直講을 제수받았다. 얼마 후 弘文館 校理로 옮겼다. 그는 이때부터 죽을때까지 무려 11년간 한번 전라도 관찰사로 外任을 맡았을뿐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弘文館 副提學·成均館 大司成·司憲部 大司憲·司諫院 大司諫·承政院 承旨·六曹參判 등 清白하고 화려한 要職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校書館 提調를 겸하고 있을때 朱子大典 등 많은 책을 校正하고, 王命을 받들어 國朝儒先錄을 편찬했다. 또 經書의 口誦 및 諺釋을 詳定하는 등 문화의 개발과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 선조 10년(1577) 3월 正二品에 올랐으며, 5월 15일 老病으로 서울에서 돌아갔다. 이때가 享年 65세로 後에 左贊成에 贈職되었으며, 仁祖때 文節이라는 諡號를 받았다.

(2) 『眉巖日記草』의 史料的 價値

『眉巖日記草』는 柳希春이 忠南 恩津 配所에 있을 때인 선조 즉위년(1567) 10월 1일부터 죽기

4) 이 부분의 서술은 朝鮮史 年譜學會가 1936-1938년 편찬한 『朝鮮史 史料叢刊 卷 8』, 『眉巖日記草 5』의 眉巖日記草 해설을 참고했다.

前前日 선조 10년(1577) 5월 13일까지 무려 11년간 쓴 친필일기이다. 본래 14冊이었다고 전해오나 失本으로 현재 12冊만 남아 있으며 보물 260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韓紙에 친필 草書로 쓴 일기를 1936-1938년 朝鮮史편수회에서 5冊으로 편집하고, 이를 『朝鮮史料叢刊』 제 8호로 頭註, 傍註를 곁들여 간행한 바 있다. 현재 이 일기는 全南 潭陽郡 大德面 章山里 213번지에 사는 후손 柳根永씨가 소장하고 있다.⁵⁾

冊의 크기는 매책 다르나 평균 39.5×31.5cm이다. 이 일기의 일부는 필자의 文集인 『眉巖集』에 초록되어 있다. 『眉巖日記草』에는 略字, 속자가 간혹 사용되었고, 誤脫과 衍文이 다소 개재해 있으며, 중간에 파손 마멸된 字句와 약간 빠진 것도 있다.⁶⁾

이 일기는 조선시대의 개인일기로는 가장 방대한 것으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며, 李珣의 『經筵日記』와 함께 『宣祖實錄』의 記事史料가 되기도 했다. 특히 東西分黨前의 政界의 동향과 士林의 동태, 監司의 任遞와 巡歷 및 감사의 직무수행, 京在所와 留鄉所의 조직과 운영 중앙관료와 地方官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많이 실려 있다. 특히 본인이 洪문관, 전라도 감사, 사헌부 관원 등을 역임하면서 겪은 사실을 비롯하여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상태와 풍속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⁷⁾ 이 방면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 받고 있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客廳 영조기록은 『眉巖日記草』 제 10책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제 10책은 乙亥(선조 8년, 1575) 5월 22일에서 丁丑(선조 9년, 1576) 12월 30일까지의 일기로 구성되어 있다. 위 일기에 기록된 객청 영조기록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 아래 『眉巖日記草 中 客廳營造記事 抄存』이다.

3. 客廳 營造記錄과 工事內容

(1) 『眉巖日記草』 中 客廳 營造記事 抄存

甲戌(선조 7년, 1574)

○ 12월 초1일(A₁)

貞伊, 傳光雲在湖南之書, 余取書而觀之云, 頃到潭陽金應祥家, 聞卜居可當之地, 孫親往觀之, 府五里之外有大山, 有洞曰廣洞, 四山回合, 有水而藏風向陽, 眞卜居之吉地, 大父主若卜築于此地, 則金應祥所養之木, 可斫而結構, 孫亦隨居, 應祥之妻, 亦相居至近, 甚好云云, 余與夫人思之, 誠有是理, 余若居于此處, 不惟聚光雲甥妹之爲幸, 東通南原鰲山之妹, 北近光雲之父子, 亦會合骨肉之一便.

乙亥(선조 8년, 1575)

○ 10월 27일(A₂)

龍泉僧, 始來運材木, --- 龍泉寺僧八十名來, 曳入梁二衝椽木一柱三介, 餉以飯, --- 余與夫人, 出觀大梁, ---

○ 10월 28일(A₃)

--- 是日, 龍泉僧軍九十五名玉泉僧軍四名合百名, 運材木幾盡, ---

○ 10월 29일(A₄)

--- 朝出後園望西北高處, 堪入祠堂, 乃宋震之地, 而可買爲己有者也, 邊潤代宋震, 監役. 清冷寺僧??來役, 平基址. --- 今日食後, 楊士衡崔尚重來謁, 余與之對??外房, 清冷寺僧, 勤運土於大廳基上, --- 共移樓下房三千五百餘冊, 置于中堂, ---

○ 10월 30일(A₅)

夫人與繼文(光先), 移置整齊書冊于中堂 龍泉僧十八人, 來曳材木羊帖中置之未畢來者. 李貞秀來訪, 約而明春許燔瓦木, 別監鄭振豪來訪, 以雨引見于北樓下.

○ 11월 초1일(A₆)

晴, 憶夢見新舍 --- 潭伯於監司晝飯出去後更入, 與我暫話, 余議以爲來仲春打埴燔瓦時, 當用僧軍, 府使曰, 當給龍泉, 玉泉二寺僧, 使分朋勸役, 則造十積, 甚不難矣.

5) 문화재관리국, 『지정문화재 목록』, 1989, p. 59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 문화대백과사전』 8, 삼화인쇄주식회사, 1988, p655

7) 『위 책』, p655

○ 11월 초2일(A₇)

朝, 前海南縣監楊君大樹過訪, 余授粢, 因其觀大廳基址, 楊以爲大門宜退建于芒種家之西, 其說甚佳, 卽從之. 大廳東垣高築, 南垣短築, 於南垣, 設小塞門, 於東垣之下, 掘溪流之土以爲行人之路, 於客室南廊書室二間之東, 有半間板堂, 於書室深間設廣窓, 淺間設雙窓, 又於大廳南垣之外, 平治土地, 以爲他日宴飲之外廳. --- 希春以此宅正西北隅陡屹, 可立祠堂, 而乃宋震之地, 以語, 震快許之, 希春甚喜.

○ 11월 초3일(A₈)

--- 昨日, 畢運材木, 乃自十月十四日, 始運材木, 至昨日始畢, 凡二十日而畢, 輸來礎石, 曾用三日之力, 輸階石, 今日, 又輸礎石.

○ 11월 초4일(A₉)

--- 李良秀來, 余議明春燔瓦于大島洞時, 乞土木, 良秀與其弟快許, --- 與木手, 議大廳柱高九尺, 余欲令八尺, 而匠氏以不然也. ---

○ 11월 초5일(A₁₀)

余教匠首智雲, 而勿起高其大廳, 務令適中. -- 石丁所送鐵釘鐵片來.

○ 11월 초6일(A₁₁)

--- 昌平宰奇蕤景遂, 送席子四葉, 酒米貳斛, 麩二同來, 皆教營造之費也.

○ 11월 초7일(A₁₂)

晴, 朝以地正, 始掘安礎之穴, 追占去十月二十五日卯時始開基也, 得☳三賁之頤, 用离生體變震生离, 賁, 文明之卦, 頤安養之兆, 其爲福祉, 孰大焉. --- 觀春擣地正之役, 頻饋酒肉, 役夫皆奮.

○ 11월 초8일(A₁₃)

宋連, 逐日與宋震交代監役, 而連尤勤幹焉 瑞峯僧三十餘名, 昌平帝所定送, 并戶內軍人十七名分二, 違杵爲地正, 軍人飽食, 踊躍春擣 --- 宋連逐日來監役末. --- 去十月二十六日成貼都承旨書狀內, 吏曹參判柳希春, 今在海南本家, 其家必窮, 卿其食物題給事有旨.

○ 11월 초9일(A₁₄)

匠建礎石而經營之, 瑞峯僧三十名, 連日運石. ---

○ 11월 초10일(A₁₅)

歸舍, 匠氏畢埋礎根. ---

○ 11월 11일(A₁₆)

朴命星家奴十五名, 來斫機械木輸來

○ 11월 12일(A₁₇)

余與夫人, 議換東溪岸上宋求禮之畚, 種竹而以籬護之, 則三四年間必成林, 可以遮東路之行人矣

○ 11월 13일(A₁₈)

自北樓大廳所用高柱及大廳曲梁等, 更覓於金彦助, 蔡洵, 宋連等處.

○ 11월 15일(A₁₉)

--- 木手昨日, 試立南廡之柱, 今日, 余見而喜之. 羅州判官尹思欽, 送乾秀魚十尾, 石首魚五束, 眞油一斗, 鹽二十斗來, 一家以切營造爲喜.

○ 11월 19일(A₂₀)

--- 興德(金)宗麗, 送堅柱所用中朴桂二十三同 --- 來, 奴玉石, 呈書狀于水使巡到順天之日, 水使答云, 成造所入釘及大鉅等, 從近備辦

○ 11월 21일(A₂₁)

府使(李仲虎)送猪一首來, 助上梁之費也.

○ 11월 22일(A₂₂)

自去夜大雪, 辰末, 匠氏爲上梁祭, 五方香火直上, 無少風颳之動, 吉兆也, 巳時初, 雪止日照, 恰立柱六箇, 亦吉兆也. --- 今日丙辰, 而巳時又是明輔星, 筮得家人之益, 體巽乃相得時, 而互坎生體, 變震比和, 吉兆也 --- 匠氏, 立南邊階上二間, 余出而觀之, 夫人餉之甚豐. --- 切親奴婢, 各備酒饌, 來餉木手. 堅柱上梁之時, 得家人之益, 變震比和, 又得時. 雪亦吉兆.

○ 11월 30일(A₂₃)

木手, 以手凍難役, 吾皆遣之, 令待歲後.

○ 12월 초1일(A₂₄)

--- 左道水使李淑男, 令營吏鞠讚, 持成造所入釘鋸來遺, 乃衝椽釘三介, 桴朴只釘十, 薄風釘參十六, 付椽頂朴只釘一百二十, 付椽尾朴只釘一百二十, 平高臺釘三百十, 連檻釘三百十五, 樞鐵十五戇所入, 排目十五戇所入, 掛鎖十五戇所入, 右三件皆鐵染, 可謂優矣, 又送全鰓一貼, 白文魚二十尾, 米蝦四斗, 鹽箭魚二百尾, 生大口魚五尾, 生絡緯五束, 生文魚一束, 石花一斗來.

○ 12월 10일(A₂₅)

--- 昏, 昌平人, 輸板子一葉來, ---

○12월 11일 (A₂₆)

陰微雨，朝，遷移中堂書冊一半于大房。

○12월 12일 (A₂₇)

--- 一板又來。

○12월 17일 (A₂₈)

--- 希春爲同知中樞，---

丙子(선조 9년, 1576)

○1월 초9일 (A₂₉)

--- 又欲燔瓦二十餘積，以備大廳及兒舍之蓋。

○1월 초10일 (A₃₀)

晴，辰時衣紅直領，設紅氈于內房，令光先磨墨，余親寫婚書---

○1월 12일 (A₃₁)

--- 昌平人，畢載板子來。

○1월 17일 (A₃₂)

得女子可寓之舍，即宋震新舍南舊庫也，--- 以宋震修粧新舍，故女子不得寓於其南庫。

○1월 20일 (A₃₃)

葵樹察訪丁至，送小施郎十杖，乃助成造之鐵也。--- 治東溪邊路，掘東岸之土，築西濱石臺，以我家已買東岸田故也。聞今月十三日，監司(崔應龍)以巳時入海南，脫笠掛房，以紗帽出坐窗外，忽見烟氣熏灼，開戶視之，則火從突孔鼠穴而出，焰騰焚燒，監司之笠，已爲灰燼，監司避坐大門，令截毀大廳--- 一半及西軒，得全云。

○1월 21일 (A₃₄)

申鴻，在南原梁牧使驛墓所，通簡云，瓦工之良者，潭陽楸洞徐漢弼云。

○1월 22일 (A₃₅)

--- 李貞秀來訪，??內間燔瓦之事，李說之甚詳。--- 府使(李仲虎)送炭三石及畚谷太谷空石，皆成造所須之物也。遣人招瓦工徐漢弼，約以明明日來役。--- 木手尔伊金言，漢陽創立宮殿上梁之日，適雪下，乃大吉之兆，頃年李邦柱造舍上梁之日，亦雨雪，舍成而登第亨通，以此推之，參判宅上梁之日雪下，亦大吉之兆云，夫人於去冬開基時，夢見大廳晝日月，亦大吉兆。--- 求瓦窯家椽木于蔡洵，安聃壽，皆見許。

○1월 24일 (A₃₆)

--- 尹牧使行，以牛十頭，輸來藍川材木，此外

速通珍島，請以三村里軍人，輸入材木云。

○1월 25일 (A₃₇)

--- 蔡元瑞來言，瓦幕椽木當許云。--- 匠氏，豎大廳之柱，貫懸壁，余與夫人，往觀甚好，又觀其鎮正大梁，手品甚佳，可喜--- 瓦工徐漢弼來謁，曾造李邦柱之瓦，手品完好，故余得任爲喜。

○1월 26일 (A₃₈)

--- 以掘埴，打埴，椽木輪轉三軍人事，通簡于府伯(李仲虎)，又遣宋震陳情。瓦工六人，始造瓦幕于大島洞，---

○1월 27일 (A₃₉)

晴，卯時，木手上大廳之梁，先上其大者，此上其廳房之間小者，其上大梁也，余與光先，朴自秋觀之，乃先排設木柵于馬木上，而四十餘人，一時協力而上之也，卯時乃黃道明輔星，而占得小畜之中孚，巽體得時，可謂吉利矣。遣大工于長城，付監司關字，而令傳送于井邑，至礪山五官也，客室板堂四間一梁。而房二間，不大不高而適中，南邊書室二間爲溫突，而窓向明，足以看書，實愜我心，然此乃夫人經營規劃之功也。--- 余於丙午春(明宗元年)，名此舍曰三碧，蓋取山水竹三色之碧耳，及今乃悟三度結構，然後成碧瓦之宇也，蓋丙午(明宗元年)成內廡大體，戊辰(宣祖元年)春作行廊，今年又成客廳，凡三度然後乃成碧宇，豐非名謙。宋緣來訪，飲之酒，緣約後日優贈椽木云，--- 陳景發被招來。議修粧木乞得事，柳洪源所占雲岾材木，最多可乞，景發之山，材木不裕云，--- 宋震，還自府使所，李公(仲虎)行下畚谷大谷兩谷越獄上，直卦掘埴打埴之役，可乙尔谷待兩而。觀勢可上云一，又給造成造器所須炭二石來，

○1월 29일 (A₄₀)

遣溫達，奉書詣柳洪源家，乞修粧木也，--- 木手上棟于大廳。

○1월 30일 (A₄₁)

--- 溫達，傳柳剛壽父子之言曰，當隨所入，許材木云。木手上衝椽。柳剛壽曰，吾先人墓岡大松木許相，其細小處，用於修粧，其本其大處，用於板堂，令永久不忘我，其意可感。

○2월 초1일 (A₄₂)

朝遣木手，率軍人，往伐椽木于畚谷宋緣之山，-

-- 宋緣，贈我椽木六十二雙，木品甚好，無異海島之產云，奴輩往理掘埴之地，埴品極好，今此築室，事事皆順，光先往監埴場，嚴檢人夫而來。

○2월 초2일(A₄₃)

--- 家僮，伐椽木，泥八谷五十雙，金守禮二十四雙一隻，蔡深十二雙。

○2월 초3일(A₄₄)

朝，李貞秀來言，瓦窯當作二窟，一則今當新造，令容二訥云，--- 洪源以修粧七十條，板子木十條爲諾，蓋一株裁作三四條故也，是時，築室燔瓦，一時並舉，時屈舉贏，家甚努苦，夫人屢嘆之。

○2월 초4일(A₄₅)

--- 因匠言，覓大木于李穡，蔡洵等處，皆蒙許。

○2월 초5일(A₄₆)

晉州判官任君應龍，專俾馱送食物青魚二十舉，大口十尾，鹽銀口魚二十尾，青魚食醃二舉來，又正鐵二十斤，麤布七端，乃扶助築室燔瓦也，布則麤而合於瓦窯，過厚---，

○2월 초6일(A₄₇)

光州牧使成公壽益書來云，晚聞令宅有土木事，恐或不贍，米太各二碩略呈，載來者以米二石，換太而來，蓋今年菽太無故也，亦可憐也，--- 朋世，還自畚谷，報宋緣又給椽木二十雙，通前爲七十六雙云，

○2월 초7일(A₄₈)

招李邦柱，曹景中二人，對午飯于斜廊，---

○2월 초8일(A₄₉)

--- 昌平以監司行下，送白米一石來，茲蓋崔力伯(應龍)，聞余成造燔瓦而行下也，昌平率送岸一石，草席一葉來，--- 連日輸椽木來，沓谷則用官級軍人，---

○2월 초9일(A₅₀)

金蘭玉詣扶安鄉校，被放學選，遂來謁，令監成造燔瓦之役，對曰，諾，

○2월 초10일(A₅₁)

--- 聚三十六人打埴，而金蘭玉監役。

○2월 11일(A₅₂)

晴，雞鳴而起，梳洗衣冠，敬書祝文，質明，祭先夫人，兼祭先公于斜廊廳，以內窄而就寬堂也，---

○2월 12일(A₅₃)

--- 清涼寺僧十九名，來役刮椽 金蘭玉，連日監役，---

○2월 13일(A₅₄)

--- 潭陽又送監司行下白米一石，蓋崔我聞築室燔瓦並舉，令十邑各白米一石來，可謂厚矣，---

○2월 15일(A₅₅)

--- 感嘆夫人規畫大廳之妙，因成四韻，營度規模誰是奇，夫人心匠似班垂，南開書室新明朗，北接樓廡舊栴栴，老斐倚窓長奇傲，兒孫開卷效吾伊，却思先子遷居訓，啓我雲仍百世禧，--- 宋求禮(庭筍)自廬所，來拜祠堂，--- 珍島郡守金緝，許以輸入召川材木，蓋用三村里軍也，

○2월 17일(A₅₆)

--- 木手，連日著椽于栴栴，--- 夕，與寬中，共覽新大廳，而稱善結構之得中，

○2월 19일(A₅₇)

--- 玉果，送炭四石來，--- 淳昌送監司行下白米一石來，監司敕成造燔瓦之役，至惠八石，過厚~~，後又二石，---

○2월 20일(A₅₈)

木手，上大廳椽木，余就坐其下，甚可觀，

○2월 21일(A₅₉)

--- 昌平送鏤一箇來，---

○2월 22일(A₆₀)

--- 憶夢見余著鞋，又見宅竈有火，皆吉兆也，

○2월 23일(A₆₁)

晴，夢吉，造瓦八訥，今日納于烘窯，---

○2월 24일(A₆₂)

--- 而金城壁之外孫也，到潭陽遂過謁---

○2월 26일(A₆₃)

--- 夫人議大廳上宇畢後，連樓子息房舍，欲先修粧，

○2월 29일(A₆₄)

--- 掘埴---，玉石還自同福，縣監金元福，送正鐵十二斤來，余平日不乞覓于各官，以大廳浮朴只釘不足，故不得已而簡請也，乾稚三首亦來，---

○3월 초1일(A₆₅)

--- 炭十三石，自瓦窯來，此後，以炭委三李，

報贈木也，

○3월 초2일 (A₆₆)

--- 余以府使(李仲虎)稔庫蓋瓦，分徵於民間，駭怪聽聞，故簡通止之，府使之答，將言將疑，令我更量示教，余乃更答，---

○3월 초3일 (A₆₇)

--- 景濂往返瓦窯，以今朝出瓦於窟故也。一烘，三訥之瓦皆熱云，可喜，潭伯李公士文(仲虎)，送酒米一石，麴二同，以助營造之費，景濂來言，今日出窯之瓦，合三訥三十張。---

○3월 초4일 (A₆₈)

夕，余與夫人，同觀大廳，不大不小，不高不甚卑，真適中也，輸瓦至初四日，先來者二百十丈，

○3월 초5일 (A₆₉)

--- 倅自光州，受小施郎七箇來，此真鐵，勝於正鐵矣。--- 借牛于兩宋同生，李監察(邦柱)，宋求禮(庭筍)，宋震，李纘，宋連，玉堅，又以吾家二牛輸瓦來，合一千二百八十四丈，

○3월 초7일 (A₇₀)

--- 招玉泉僧，今日打埴，--- 奴夢勤，同大木智雲，往觀泥八谷金彥勛久積之木，地放及修粧可用之木頗多云，可以細布買之，多喜~~玉泉僧來者至七十名，饋飯二次，酒亦如之，僧徒勤事云，--- 大木智雲及一匠，歸視稻田，以中米二十斗，分給四匠，又以白米三斗賞智雲，期以望日復來受會饗，智雲等大喜，約付種畢後復來，修粧中間廡，餘二匠深守，朱希成，留為修粧云，中間廡，--- 今者所打之埴，可為四釜云，金彥勛之木，可用者四十餘條云，

○3월 초9일 (A₇₁)

--- 念吾家大廳上宇既畢，瓦窯打埴，亦略中畢，然後雨降，亦一幸也，明春修粧大廳，明年七八月山役，即入祠堂，以希春雖中子，而贈承旨祖公，於光雲為高祖代盡無祭，故希春代未盡，爵高親孫，禮當立祠以祭故也，--- 朴命星送藥四負來，---

○3월 초10일 (A₇₂)

--- 以八升布四十尺，買金彥勛伐積之木，---

○3월 13일 (A₇₃)

--- 金蘭玉通云，今日出瓦數，二積八百九十張，通計昨日輸入三百張，為三積一百九十張，---

--- 世同(金麟厚家奴)言，金校理造屋過高大，至於百間，而地正不牢，燔瓦不熟，日漸頽壞，創自乙卯(明宗十年)。丙辰，今纔二十年，而勢不能支持，今觀此大廳，不高不大，適中完固，若更以好瓦蓋之，則永保無虞云，

○3월 14일 (A₇₄)

--- 朝，興德金宰(宗麗)，送末醬一石，鹽十斗，鹽青魚五束，鹽石首魚十束，五升木綿五匹，果子各種來，為明日會享木工，而報施故也，

○3월 15일 (A₇₅)

晴，會享四木手，以報施五升木八疋都給，更以一疋，賞大木智雲，又招瓦工六人，為起始宴，都給中米三十斗，奴婢亦多辨飲食來餉，--- 木手前日山役報施別給外，成造報施，通計給五升木二十七匹，中米二十斗，上匠賞加白米三斗，凡三十二匹矣，--- 瓦工又給報施木六疋，

○3월 16일 (A₇₆)

晴，夢見人結架於木上而安坐，--- 約蓋匠崔莫山二十日迎來，買金彥勛舊木四十條來，

○3월 17일 (A₇₇)

--- 淳昌蓋匠來，令後日更通當再來，

○3월 18일 (A₇₈)

--- 借入牛輪瓦二積三百五十丈，--- 余乞鐵于潭府伯(李仲虎)，~~吝之，

○3월 20일 (A₇₉)

遣奴，送扇子于蓋匠崔莫山，家在羅州，而來役于大峴士家也，--- 蓋匠崔莫山，許以開月將來，

○3월 21일 (A₈₀)

晴，朝鄭季(澈)涵復來，相對斜廊房，---

○3월 22일 (A₈₁)

--- 得瓦窯土木二十三株于宋海完之山，可烘一釜造三積云，

○3월 24일 (A₈₂)

--- 送病鷹于昌平，仍乞藁草，奇縣令疑，送八十束來，--- 往遺柳強首，謝將惠修粧木也，---

○3월 25일 (A₈₃)

昨日，借舊木十四條于金彥勛，今朝輸來，食後，出坐外軒---

○3월 26일 (A₈₄)

晴，出燔瓦于窯，--- 出窯瓦，凡三訥一百三十

八丈，

○3월 28일(A₉₅)

--- 借人牛馬輪瓦，十五匹六度來，--- 今日輪來瓦二積十三張，令金蘭玉。光先通計，上邊五積四百張，下邊二積六百七十八張，合計八積七十八丈，留窯一積五十丈，

○3월 29일(A₉₆)

--- 畚谷人，來輪三駄，每一度，瓦四十七丈，

○4월 초3일(A₉₇)

--- 三李(李良秀，英秀，貞秀)都贈瓦土木五十條，夕，與夫人，出觀大廳冊房修粧，

○4월 초4일(A₉₈)

晴，燔瓦出穴，--- 出穴瓦凡三積一百三十四丈內，塞甌一百十四丈，則先入來，

○4월 초7일(A₉₉)

晴，自昨夕至今晨，夫人，措辨曾祖別侍衛忌日祭，甚精備，令宋震及光先等祭于震之新大廳---

○4월 초8일(A₉₉)

朝，遣奴，招羅州蓋匠崔莫山，

○4월 초9일(A₉₁)

晴，夫人，聞宋震木手，以事出去，親詣新大廳，觀覽而來，

○4월 초10일(A₉₂)

--- 又乞燔瓦材斫木二十六株，

○4월 11일(A₉₃)

--- 奴率羅州蓋匠崔莫山，夕來到，

○4월 12일(A₉₄)

晴，早朝，戶內人等二十名，助蓋瓦之役，或掘土而泥之，或負瓦與土，而升于字上，崔莫山以蓋匠之良，主大廳，官奴豆樂，蓋樓梗及庫梗，余終日出坐大廳地監視，

○4월 13일(A₉₅)

--- 二蓋匠，俱致力，第五釜瓦出穴者，三積三百十丈，奴，負舊出瓦九十四丈來，昏，與夫人，更觀蓋瓦，---

○4월 14일(A₉₆)

--- 豆樂，蓋庫廡略畢，其廡東邊及冊房，則讓于莫山，

○4월 16일(A₉₇)

豆樂蓋冊房亦好，--- 新大廳，堂四間，房二

間，柱高九尺，梁長十八尺，每間闊九尺，畢造瓦，

○4월 17일(A₉₈)

--- 以借牛通計十三隻，運瓦二百九十六丈來，芒種於翌日，追運二十丈來，

○4월 18일(A₉₉)

--- 申鴻來於昨日，今日，命監蓋瓦之役，---

○4월 19일(A₁₀₀)

--- 以冊房龜頭，曲折向南，出於虛間之外也，豆樂，略畢其事姑退去，

○4월 21일(A₁₀₁)

--- 蓋匠崔莫山，蓋大廳畢，爲役九日，用人夫一百數十也，雖有嗜酒引日之愆，大概蓋瓦周緻可觀，自去歲十月初三日始役，臘月停役，至今凡役六箇月，而十八間，大概粗訖，

○4월 22일(A₁₀₂)

朝，奴馬，以護送蓋匠崔莫山，詣羅州，

○4월 23일(A₁₀₃)

--- 奴點孫，還自羅州蓋匠家，--- 以燔瓦，取土木于三李山，

○4월 25일(A₁₀₄)

--- 吾家附近居民，除還上柴木，輸入瓦事，府公行下云，--- 申鴻來，令監移瓦于工作廳傍，凡一訖七百張焉，燔瓦事畢，會瓦工六人，饗酒肉而給報施，通計予五升木三十四并糧太，

○4월 27일(A₁₀₅)

--- 官除還上柴木軍，令輪瓦來，畚谷人先來，--- 朝，先輪瓦四百張來，芒種計留窯者，凡欠五十張八訖云，--- 宋震來謁，震，以修粧其新舍，---

○4월 28일(A₁₀₆)

--- 宋震，爲我寫余辛卯春(中宗二十六年)東堂鬼神策，

○5월 초2일(A₁₀₇)

晴，巳時，司憲府書吏李守良，奉有旨來，乃去月二十五日政，希春入大司憲首望受點，即日降有旨書狀云，今以卿爲司憲府大司憲，卿其斯速乘駟上來云~~~

○5월 초3일(A₁₀₈)

--- 古阜郡守李璫，送米太各一石來，周營造之急也，---

○5월 초6일(A₁₀₉)

--- 府使令運瓦軍各加十丈，除還上所納木也 -

○5월 초7일(A₁₁₀)

--- 地理僧惠息，來自清涼寺，余略問蔡天福家基，則對以墳後新居之人，萬~無妨云，惠息往看蔡天福之居，還言居于腰凸處，在地理，為賣於人，而他適其居，差後甚吉，可以卜築，門前二水及南向結字，得人山作案，甚有福云，蔡天福每欲賣於我家，而我今方成造，米不足以添給，故姑待明年，
--- 聞朴命星家溫突工老僧最妙，時在無等山云，

○5월 초8일(A₁₁₁)

晴，夢見椽木入宅，吉兆也，送相地僧惠息于珍原光燮處，---

○5월 11일(A₁₁₂)

奴夢勤，李孫，往瓦窯計瓦，在其處者，凡七訥六百九十丈云，又五十丈先輸來，夕，與夫人，其觀大廳北邊收積散瓦之役，南積散瓦二百四十丈，北積者六百十丈，

○5월 13일(A₁₁₃)

--- 昌平遺還上，載一積瓦來，---

○5월 15일(A₁₁₄)

--- 艤之子慶元，亦被招塗窓戶 ---

○5월 18일(A₁₁₅)

--- 海南奴漢陽等，鱒魚買市者來，五束矣，--
- 夕，令奴輩整疊散在瓦，

○5월 19일(A₁₁₆)

--- 牆工豆樂來，與人議取溫突石可當處，咸曰昌平。潭陽相接三歧銅店里，有石如天作，安突不裂在，可寶愛也，

○5월 20일(A₁₁₇)

朝，令豆樂及奴等撤內南牆，退築而廓之，退築，牆內比前寬闊，一尺有半，因微雨，暫役而止，--
- 以雨，未能築石階為牆本，內牆宜退廓久矣，今日，乃壬子旬，各神上天，故修營，

○5월 21일(A₁₁₈)

--- 豆樂等，退築內牆石階，自今日為始，

○5월 23일(A₁₁₉)

雨，夢與夫人，同居一新宅 --- 以雨，停築牆，

○5월 24일(A₁₂₀)

--- 聞昨朝，宋震室溫突出火，燒婦人段紗衣服

數件，朝陰晚晴，朝見雲陰，以為必雨，而姑遣牆工豆樂，尋悔之，申時，豆樂還來，率奴輩，築牆一層

○5월 26일(A₁₂₁)

--- 豆樂於南石階上，築垣二尺有半，姑停役二日，以待日乾，---

○6월 초1일(A₁₂₂)

--- 遣宋連，率六奴，往視在窯之瓦，夫瓦一訥四十丈，女瓦三訥五百十丈已積，當償金部將瓦一訥七百五十丈，

○6월 초2일(A₁₂₃)

--- 豆樂，蓋瓦南牆，建闔柱以廣之，其高自平地，為一男子長有半餘矣，牆內寬闊，可鋪木綿，荏子，而列醬甕矣，此夫人之計也，---

○6월 초4일(A₁₂₄)

--- 奴玉石私謁同福，余通金宰元福所問粧鐵，復書云，善造以送為約 ---

○6월 16일(A₁₂₅)

--- 洞內庶人饗吾家飲食者，以牛運瓦來，--- 洞人通前後二十九人，各持牛一隻，曾運瓦一度，今日，又運五度，凡運瓦三千五百四十四丈，餘在五百四十五丈云，又貸金喜家瓦當酬，而積在窯傍者，一千七百五十丈，

○6월 28일(A₁₂₆)

--- 光州牧使成君壽益，送粧鐵四十四條重五十斤來，---

○7월 초8일(A₁₂₇)

--- 同福宰金元福，送正鐵十四片重二十斤來，

○7월 12일(A₁₂₈)

--- 余以古阜所贖 扇子四柄，并書送于潭家 --

○7월 28일(A₁₂₉)

潭陽家書來，---

丁丑(선조 10년, 1577)

○2월 초9일(A₁₃₀)

--- 令匠氏智雲，壁幪只於一間，前已塗壁，一間則勿為壁幪，只為安書卓子，立兩條而橫板二層，以置書冊，若房中有賓客會坐事，則聚冊于一處，而移出其卓於外為佳，智雲又請，於房東邊疏幪枝，

正中開分合，而不開戶於左右邊，余從之，

○3월 초2일(A₁₃₁)

希春 弘文館 副提學이 되다.

(2) 工事 概要와 客廳 平面構成

1) 工事 概要

건축주 柳希春은 본래 全南 海南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성장하였으나, 후에 결혼하고 一家를 이루면서 妻鄉인 潭陽에 옮겨 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곳 潭陽에 거처할 새집을 경영하였던 것이다. 그가 潭陽에 주택을 경영하였음은 일기 A₆₂, A₁₂₈, A₁₂₉와 아래 일기 B₁, B₂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일기 A₁₂₈의 古阜所에서 부채와 편지를 潭陽집으로 보냈다는 내용과 A₁₂₉의 담양집에서 편지가 왔다는 것으로 보아 潭陽에 살림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일기 B₁, B₂는 담양집에 行廊을 건축했음을 기록한 것으로 위 내용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때 경영한 새집의 각 건물은 한번만에 완공되지 않았다. 建築主 柳希春은 일기 A₃₉에서 堂號의 의미와 안채·行廊·客廳 등의 각 건물 건축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丙午年 봄에 이 집을 ‘三碧’이라 했는데, 모두 산과 물과 대나무의 三色이 푸르다는 것에서 취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세번 結構한 뒤에 이루어진 푸른 기와집이다. 모두 丙午年(명종원년, 1546)에 대체로 안채를 짓고, 戊辰年(선조 원년, 1568) 봄에 行廊을 짓고, 올해(丙子: 선조 9년, 1576)에 또한 客廳을 완성하니 무릇 세번 然後에 푸른집이 완성되다.”(A₃₉)

라고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그가 33세때인 丙午年 봄에 처음 안채를 건축한 후 이로부터 30년에 걸쳐 行廊·客廳 등의 각 건물을 차례로 건축하여 이때 비로소 전체적인 완공을 눈앞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채는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1567년 보다 21년 이른 1546년에 건축된 까닭에 당시의 공사기록이 일기에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그때의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일기에는 丙子年에 시작한 이번 客廳 조영공사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바로 丙子年 客廳 조영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行廊을 건축한 戊辰年 봄에 건축주는 司諫院 司諫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行廊 조영내용을 潭陽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해 개괄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이다. 다음은 당시의 行廊 조영을 보고한 편지내용이다.

B₁: --- 潭陽金蘭玉上來，見細君諺書，行廊十三間，已堅起，又造橫附三間，但恨無蓋瓦，將燔瓦云 --- (戊辰 4월 3일)

B₂: --- 潭陽廊，借貸人瓦以蓋云。 (戊辰 4월 9일)

위 B₁, B₂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行廊은 戊辰年 3월에서 4월초 사이 13間 규모로 지어졌으며, 기와가 없어 지붕을 이지 못하다가 결국 기와를 빌어 지붕공사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丙午年 봄에 안채를 짓고, 戊辰年 봄에 行廊을 건축함으로써 客廳만 건축하면 집의 전체적인 배치가 완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客廳은 규모와 尺數는 A₉₇, A₁₀₁에 잘 나타나 있다. 客廳은 18間の 규모로 6개월에 걸쳐 건축되었으며(A₁₀₁), 尺數는 기둥높이 9자, 들보길이 18자, 每間の 너비 9자로 지어졌다(A₉₇).

또한 위 일기 A₃₉에서 주목되는 것은 ‘三碧’이란 堂號에 걸맞게 ‘碧瓦’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堂號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은유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碧瓦’를 사용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일기 A₃₉의 문장 앞뒤에 “成碧瓦之字也” 또는 “凡三度然後乃成碧字”라고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아 ‘碧瓦’를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곳 潭陽이 고려시대 靑磁瓦 窯址로 유명한 全南 康津과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이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1964년에 발견된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117번지의 高麗靑磁의 窯址에서는 靑磁 수막새와 암막새 기와 및 靑磁素文 수키와·암키와 등이 출토된 바 있다.⁸⁾

그렇다고 위 碧瓦와 靑磁瓦가 同種의 기와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碧瓦는 단지 잔흙의 종류와 소성온도를 달리하여 구워낸 푸른빛이 감도는 기와

8)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5, p. 46-47.

甲戌(선조 7년, 1574) 12월 1일	光霽이 潭陽府 5리밖 廣洞을 吉한 家基로 추천함. (A ₁)
乙亥(선조 8년, 1575) 10월 25일	卯時에 開基하다. (A ₁₂)
10월 29일	淸冷寺 僧들이 터를 고르고, 또 大廳터 위에 흙을 운반하다. (A ₄)
11월 2일	담장 배치계획과 새 대청(新大廳) 평면계획을 수립하다. (A ₇)
11월 3일	10월 14일 시작한 재목 운반을 마침, 礎石 및 階石 운반하다. (A ₈)
11월 7일	地正 및 초석 놓을 구덩이 파다. (A ₁₂)
11월 8일	瑞峯寺 僧·昌平縣監이 보낸 役夫·戶內軍人으로 달고질하며 地正함. (A ₁₃)
11월 9일	定礎·瑞峯寺 僧들이 연일 돌을 운반하다. (A ₁₄)
11월 11일	機械木을 다듬어 운반해 오다. (A ₁₆)
11월 15일	南廡에 기둥을 세우다. (A ₁₉)
11월 22일	辰時末에 上樑祭를 지냄. 기둥 6개 세움, 또 남쪽 섬돌위 2간에 기둥 세우다. (A ₂₂)
11월 30일	추위로 공사를 일시 중지함. (A ₂₃)
丙子(선조 9년, 1576) 1월 20일	집 동쪽 시냇가에 길을 닦고, 서쪽 물가에 석축하다. (A ₃₃)
1월 25일	大廳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결구하다. (A ₃₇)
1월 27일	대청의 廳과 房 사이에 大樑과 宗樑을 올려 결구하다. (A ₃₉)
1월 29일	목수가 대청에 도리를 엮다. (A ₄₀)
1월 30일	목수가 衝椽을 걸다. (A ₄₁)
2월 12일	淸涼寺 僧 19명이 와서 서까래를 다듬다. (A ₅₃)
2월 17일	木手が 연일 도리위에 서까래를 놓다. (A ₅₆)
2월 23일	기와 8누리 만들어 기와가마에서 굽다. (A ₆₁)
3월 7일	목수 중 일부는 播種을 끝내고 다시 오기로 하고, 匠人 深守와 朱希成은 계속남아 中間廡를 修粧하다. (A ₇₀)
3월 9일	대청 지붕 뼈대공사를 대강 마침과 동시에 기와 굽고 잔흙 이기는 일도 중간정도 끝나다. (A ₇₁)
4월 3일	대청 冊房을 修粧하다. (A ₉₇)
4월 12일	役夫 20여 명이 기와 이는 일을 돕다. 崔莫山이 主大廳을, 官奴 豆樂이 樓체 및 庫체의 기와를 이다. (A ₉₄)
4월 16일	豆樂이 冊房의 기와를 이다. 새 대청은 堂이 4칸, 방이 2칸이며, 柱高 9자·들보길이 18자 이다. 기와 굽는 일을 끝마치다. (A ₉₇)
4월 21일	蓋匠 崔莫山이 대청 기와 이는 일을 마침. (모두 9일간 일함) 작년 10월 3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6개월간 건물 18칸 짓는 일을 대강 마치다. (A ₁₀₁)
5월 7일	溫突工을 찾다. (A ₁₁₀)
5월 15일	慶元을 불러와 창호를 바르다. (A ₁₁₄)
5월 20일	豆樂 및 종들에게 집안 남쪽 담을 칠거하고, 새로 물려 쌓도록 하다. (A ₁₁₇)
6월 2일	豆樂이 남쪽 담에 기와를 이다. (A ₁₂₃)

표 1 客廳 건축시의 공사일정

였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무엇보다 조선시대 주택에 靑磁瓦를 사용했다는 기록과 실례가 全無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일기의 客廳 조영시 燔瓦 기록에는 단지 '瓦'라고만 서술하고 있고, '碧瓦'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碧瓦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堂號 '三碧'을 강조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록이 없는 丙午年의 안채 조영시 '碧瓦'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당시의 주택에서 '碧瓦'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우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客廳(新大廳) 건축은 선조 8년(1575, 乙亥) 10월 3일 시작되어 그해 선달 추위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停役한 후 다음해 선조 9년(1576, 丙子) 7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공사의 성격과 내용을 工程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客廳 平面構成과 배치

客廳의 평면구성에 대해서는 일기 A₇, A₃₉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기 A₇에 “--- 於客室南廊書室二間之東, 有半間板堂, 於書室深間設廣窓, 淺間設雙窓, ---”이라 하여 客室 南廊 書室 2間の 동쪽에 半間 板堂을 두고 書室 深間에는 廣窓을, 淺間에는 雙窓을 시설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₃₉에는 “--- 客室板堂四間一梁·而房二間, 不大不高而適中, 南邊書室二間爲溫突, 而窓向明, 足以看書, ---”라 했다. 客室 板堂은 四間 一梁이고 방은 二間이며 크지않고 높지않으며, 南邊 書室 二間에는 온돌을 놓고 남쪽에 창을 달아 책을 보기에 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客室은 앞뒤 文脈과 내용으로 볼 때 전술한 A₃₉의 客廳을 다르게 지칭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 客廳은 大廳 또는 新大廳·新舍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는 A₂₉, 71, 99(大廳), A₅₄, 87, 91, 97(新大廳), A₃₂(新舍)에서 볼 수 있다.

이 客廳은 독립하여 건축된 건물이 아니라 기

존의 北樓에 연결시켜 남쪽으로 지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일기 A₃₇의 “--- 匠氏, 豎大廳之柱, 貫懸壁 ---”과 A₅₅의 “--- 北接樓廡 舊檜楣 ---”에서 짐작된다. A₃₇의 大廳 기둥을 懸壁을 꿰고 세웠다는 내용에서 기존 건물에 대청을 連接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A₅₅에서 北으로 樓체의 舊 서까래와 인방에 접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北樓에 연결하여 客廳을 건축했음을 알 수 있다.

新大廳(客廳) 간살에 대해 일기 A₉₇에는 “--- 新大廳, 堂四間, 房二間, 柱高九尺, 梁長十八尺, 每間闊九尺 ---”이라 하여 新大廳이 마루 4칸, 방 2칸에 기둥높이 9자, 들보길이 18자, 每間 너비 9자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梁長十八尺, 每間闊九尺”이라 한것으로 보아 이 집은 측면 1칸이 9자인 겹집으로 즉 측면 2칸이 18자, 정면 도리간 1칸이 9자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新大廳이 마루 4칸, 방 2칸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일기 A₃₉의 내용과도 부합되어 新大廳과 客室이 동일 건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新大廳의 기둥높이는 8자로 할 것을 주장하는 건축주와 9자를 고집하는 목수가 의논하여 결국 9자로 결정되었다. (A₉, 10, 68)

일기에 보이는 室名 및 建物名으로는 內房(A₃₀), 大房(A₂₆), 中堂(A₄, 5), 中間廡(A₇₀), 庫廡(A₉₆), 庫梗(A₉₄), 樓梗(A₉₄), 北樓(A₅), 南庫(A₃₂), 斜廊(A₄₈), 斜廊廳(A₅₂), 斜廊房(A₈₀), 樓下房(A₄), 虛間(A₁₀₀) 등이 있다. 문장의 의미상 內房과 大房은 안채에, 斜廊·斜廊廳·斜廊房은 사랑채에 있는 室名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樓下房은 北樓에 달린 방으로 虛間은 헛간으로 보는 게 무난하다. 中間廡, 庫廡 등의 廡는 ‘一廡라 하여 집 한 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⁹⁾ 中間몸채, 庫채 등으로 해석되나 반드시 독립된 別棟의 건물만 지칭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이집에는 안채·사랑채·행랑(A₃₉)이 別棟 또는 연결되어 배치돼 있었으며, 이밖에도 이들 건물들 사이에 北樓, 中間廡, 庫廡, 등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9) 李哲煥, 「物譜」, 景文社 영인본, p.197.

한편 류희춘은 객청을 건축하면서 집의 正西北쪽에 사당을 짓고자 했으나 宋震의 땅이라 그의 허락을 얻어(A₇) 결국 다음해(丁丑) 7, 8월에 祠堂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 (A₇₁) 그는 祠堂을 짓게된 경위를 “나는 비록 둘째 아들이나 贈承旨公인 할아버지가 光雲에게는 高祖代가 되어 제사 지내는 것이 끝나게 되므로, 나는 제사 지내는 代가 끝나지 않았으며 벼슬이 높은 친손으로서 禮로는 당연히 祠堂을 세워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것으로 볼때 당시 士大夫 주택에서 사당을 건축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客廳 건축시 이 집 담장과 大門의 배치에 대해 살필 수 있는 내용이 일기 A₇, 17, 33, 123에 있다. A₇에는 대문을 집 西쪽으로 물려서 짓고, 大廳(객청으로 생각됨) 동쪽담은 높게 쌓되 남쪽담은 쌓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남쪽담에 작은 塞門을 내고 동쪽담 아래에는 개울 흙을 파올려서 行人들이 다닐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쪽담 있는데는 대나무를 심어 생울을 만들어 東路에 다니는 사람들의 視線을 차폐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A₁₇) 결국 A₇에서 계획한 대로 집 동쪽 개울가에 길을 닦고, 그 서쪽 물가에는 돌을 쌓았다. (A₃₃) 집의 남쪽 담장은 闕柱를 세워 남자 키의 한 길 반 정도로 쌓아 거기에 木綿과 가지를 심고 장독대를 두도록 했다(A₁₂₃).

(3) 공사내용 분석

1) 立地選定과 風水說

조선시대의 주택구성과 집터의 선정에 큰 영향을 준 것은 風水地理說과 圖讖思想인데 이들은 보통 합해서 風水·圖讖說로 불려졌다. 집터의 선정은 地官·地師가 하였으며, 地學에 밝은 사람은 스스로 집터를 선정하기도 했다.¹⁰⁾

건축주 柳希春은 풍수도참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집터를 선정할때는 반드시 地理僧(또는 相地僧)을 불러 보이고 길흉을 따졌다. 전술한 일기 A₁, A₁₁₀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다. A₁은 종손자 光燁이 潭陽府에서 5리 떨어진 廣洞에 위

치한 家基를 살펴보고 류희춘에게 편지한 것이다. 거기에서 “---府五里之外有大山, 四山回合, 有水而藏風向陽, 眞卜居之吉地 ---”라 한 것으로 보아 풍수설이 주택입지 선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A₁₁₀은 地理僧 惠息에게 매입할 蔡天福의 집터에 대해 풍수설에 입각하여 길흉을 판단토록 한 것이다. 즉 “---地理僧 惠息, 來自清涼寺, 余略問蔡天福家基, 則對以墳後新居之人, 萬~無妨云, 惠息往看蔡天福之居, 還言居于腰凸處, 在地理, 爲賣於人, 而他適其居, 差後甚吉, 可以卜築, 門前二水及南向結宇, 得人山作案, 甚有福云 ---”라 하여 蔡天福의 집터가 풍수도참적으로 매우 길한 家基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기에는 이밖에도 地理僧 등에게 家基의 길흉을 살피도록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C₁, C₂).

C₁: ---遣僧靜安, 泛鐵于西門外新基, 則艮坐坤向辛破, 最爲吉地云, 水破之說, 自郭璞以來無之, 胡舜臣獨言之 --- (己巳年: 1569년 10월 29일)

C₂: ---學長僧清進來謁, 光先以長田里金器玲家基之爲問, 清進曰, 此三水交會環抱, 而山又圍繞, 乃大吉之地, 而從前人物富盛之地也, 卜居最好云, --- (乙亥年: 1575년 12월 12일)

C₁에서 僧 靜安은 새로 집지을 터에 泛鐵로 좌향을 살펴보고 艮坐坤向의 辛破로 가장 좋은 吉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水破之說은 郭璞以來 없었는데 胡舜臣 만이 말하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C₂는 學長僧 清進이 金器玲의 家基에 대해 세 강물이 만나 둘러싸고 산 또한 위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종전에 여기서 인물이 번성하여 살기에 매우 좋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일기에 나타난 위 기록들을 통해 볼때 집터의 선정에는 風水圖讖說이 영향을 미쳤으며, 풍수설에 따라 집터의 길흉을 판단해주는 地官으로는 相地僧이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2) 開基, 地正 및 定礎

이 공사는 선조 8년(1575, 乙亥) 10월 25일 卯時 새대청 집터를 開基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A₁₂), 開基 및 地正·定礎의 공사일정은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乙亥 10

10)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p. 813.

월 29일에는 淸冷寺 僧들이 와서 대청이 들어설 자리를 고르고, 그 위에 흙을 운반하는 등 地正 할 준비를 하였다. (A₁) 다음달 11월 7일 일기에 “朝以地正, 始掘安礎之穴”이라 한것으로 보아 이날 地正을 함과 동시에 주추가 놓일 자리의 흙을 파내고 礎盤을 만드는 작업을¹¹⁾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A₁₂) 이튿날에도 瑞峯寺 僧¹²⁾ 및 昌平¹³⁾ 縣監이 보낸 役夫 그리고 戶內軍人들이 달고를 사용하여 터를 사방 골고루 견고하게 다지는 地正 작업을 계속했다. (A₁₃) 이는 집지을 터전의 地盤을 견고하게 다지는 것으로 당시 건축공사에 있어 一次的 작업이었다. 이처럼 중요한 地正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일찍 퇴락한 예를 일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기 A₇₃에 “世同(金麟厚家奴)言, 金校理造屋過高大, 至於百間, 而地正不牢, 燔瓦不熟, 日漸頽壞, 創自乙卯(明宗十年)·丙辰, 今纔二十年, 而勢不能支持,”라 한 것이 그것으로 당시 유학자로 이름난 金麟厚가 집을 100間이 되도록 너무 높고 크게 지었으나 地正이 굳지 않고 燔瓦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날이 갈수록 기울고 무너져서 겨우 2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능히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당시 건축공사에서 地正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공사에 사용된 礎石과 階石은 地正작업중이던 乙亥 11월 3일을 前後하여 3일간 운반되었으며(A₈), 이후에도 많은 石材가 瑞峯寺 僧들에 의해 11월

9일경 연일 운반되었다. (A₁₄) 그리고 일기 A₁₄의 “匠建礎石而經營之”과 A₁₅의 “匠氏畢埋礎根”이란 기록으로 보아 乙亥 11월 9일경 礎盤 만드는 작업을 끝내고 定礎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3) 立柱 및 上樑

대개 地正과 定礎하는 일이 끝나게 되면 立柱하게 되는데, 立柱에 앞서 朴命星의 家奴 15명이 機械木을 다듬어 운반해왔다. (A₁₆) 일기 A₁₉에 “木手昨日, 試立南廡之柱”라 한 것으로 보아 乙亥 11월 15일 처음으로 南廡에 기둥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興德縣監이 立柱할 때 사용되는 중간 크기의 朴桂(中朴桂) 23同을 보내왔다. (A₂₀)

이렇게 南廡에 처음 立柱한 지 7일 되는 11월 22일 辰時 末에 비로소 上樑祭를 거행했는데, 이날 남쪽 階石 위 두 칸에 기둥 6개를 세웠던 것이다. (A₂₂) 이날 목수들에게는 음식을 매우 풍성하게 대접했으며 노비들도 각자 술과 반찬을 마련해와 목수들을 대접했다. 上樑祭를 거행한지 8일 후 추위로 목수의 손이 얼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자 이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며 새해 설밑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丙子 1월 25일경 工役을 再開하여 목수들이 懸壁을 뚫고 대청에 기둥을 세우고(A₃₇), 1월 27일 卯時 대청에 들보를 올려 結構했다. 이때의 上樑에 대해 일기 A₃₉에 “木手上大廳之梁, 先上其大者, 此上其廳房之間小者, 其上大梁也, 余與光先, 朴自秋觀之, 乃先排設木柵于馬木上, 而四十餘人, 一時協力而上之也,”라 기록했다. 이것으로 대청에 들보를 들어 올릴때 먼저 큰것을 올린 다음 廳房間에 놓이는 작은 들보를 올리고 그 위에 대들보를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먼저 馬木위에 木柵을 설치하고 40여명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 上樑했다는 것이다.

4) 기둥 上部架構 및 修粧

상량 직후인 丙子 1월 29일 대청에 마룻도리를 올렸고(A₄₀), 1월 30일에는 衝椽을 걸었다. (A₄₁) 衝椽을 걸고 나서는 木手에게 役夫를 데리고 畚谷宋緣의 산에 가서 椽木을 베도록 했으며, 이날 宋

11) 『增補山林經濟』의 「卜居篇」, 「築基條」 基址에 보면 礎盤을 만드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달고로 지반을 다져 굳고 단단하게 되면 주추 놓을 자리를 살펴 정하고 말구유형상(馬槽形)과 같이 땅을 반 길 정도의 깊이로 파고 7-8寸 두께로 沙土를 채우고 물을 뿌려 다지기를 여러번 반복하여 礎盤을 만든다고 했다. (김성우·안대희, 『林園經濟志』, 월간 건축과 환경 1987. 8월호, p. 123) 이렇게 礎盤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立砂基法이라고 하는데 위 기록이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이 절은 인근 昌平縣 無等山에 있는 사찰로 보인다. (민족문화추진회, 『國譯新增東國輿地勝覽』, 민문고, 1989, p. 179.)

13) 昌平縣은 潭陽府에 접한 縣으로 경계까지의 거리는 북쪽으로 11리이다. (민족문화추진회, 『앞책』, p. 177.)

緣은 연목 62雙을 보내왔다. (A₄₂) 이튿날에도 집안 중들을 보내 연목 86雙을 베었고(A₄₃), 2월 6일에 또 송연이 연목 20雙을 보내주었는데, 이것을 포함해 모두 76雙의 연목을 기증한 것이다. (A₄₇) 이렇게 구한 도합 162雙의 椽木이 新大廳(客廳) 공사에 사용되었다.

2월 12일에는 淸涼寺 僧 19명이 와서 서까래를 다듬었으며(A₅₃), 2월 17일을 전후하여 연일 도리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서까래를 걸었다(A₅₆). 이때쯤 内部修粧을 제외한 골조공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3월 9일 일기인 A₇₁에 “念吾家大廳上宇既畢”이라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월 15일 일기에 목수 4인에게 잔치를 베풀고 五升무명 8필을 都給으로 나누어 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목수 일이 거의 끝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월 26일에 건축주는 부인과 의논하여 대청 상부 골조공사가 끝나면 연달아 樓에 붙어 있는 지식房을 먼저 수장할 계획을 수립했다. 다음달 3월 7일 大木 智雲을 비롯한 일부 목수들은 며칠간 播種하고 다시 돌아와 中間廡를 수장하기로 하고, 목수 深守와 朱希成 두 사람은 계속 남아 中間廡를 수장했다. (A₇₀) 대청 수장공사는 본래 “明春修粧大廳”(A₇₁)이라 하여 이듬해 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나중에 그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즉 4월 3일 일기의 “與夫人, 出觀大廳冊房修粧”이란 내용으로 보아 새 대청의 수장공사가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3월 9일경 대청(객청) 지붕 골조공사를 대강 마치게 되자 남은 일은 蓋匠을 불러 지붕에 기와를 이는 일이었다. (표. 1참조) 지붕공사에는 羅州에 사는 崔莫山과 官奴 豆樂이 蓋匠으로 일했다. (A₇₆, 79, 88, 91, 94, 96, 97, 98, 99, 100) 지붕에 기와를 이는 공사는 丙子 4월 12일 시작되어 21일까지 9일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蓋匠 2명을 비롯 백수십명의 役夫가 동원되어 일했다. (A₉₄, 96, 99) 지붕공사는 蓋匠 崔莫山이 주도했는데, 그가 主大廳 및 東邊과 冊房 그리고 豆樂이 樓梗 및 庫梗의 기와를 이었다. 客廳의 지붕형태를 살필 수 있는 기록이 A₉₈에 있다. A₉₈에 “而冊房龜頭,

曲折向南, 出於虛間之外也”라 하여 객청내 책방의 龜頭(용마루로 보임)를 南으로 향하게 꺾어 헛간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客廳은 一字形이 아니라 卍字나 ㄴ字形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5) 담장공사

담장공사는 丙子 5월 20일 시작되었다. (A₁₁₇) 담장 배치계획은 이미 작년 11월 2일에 前海南縣監 楊大樹의 의견을 좇아 수립된 것으로(A₇) 客廳 평면계획과 배치에서 전술한 바 있다. 담장공사는 앞서 蓋匠으로 일한 豆樂이 奴들을 데리고 일했으며, 그는 5월 19일 도착해서(A₁₁₄) 다음날부터 안채 남쪽담을 철거하고 물려 쌓았다. 일기 A₁₁₇에는 “令豆樂及奴等撤內南牆, 退築而廓之, 退築, 牆內比前寬闊, 一尺有半, 因微雨, 暫役而止, --- 以雨, 未能築石階爲牆本, 內牆宜退廓久矣”라 하여 안채 남쪽담을 물려 쌓으면 담장 안이 이전보다 1.5척이 넓어지는데, 이날은 비가 와서 담장에 石階를 쌓지 못하였다고 했다.

豆樂 등은 5월 21일 안담장 石階를 물려 쌓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A₁₁₈), 5월 26일에는 남쪽 石階 위에 담을 2尺半 높이로 쌓았다. (A₁₂₁) 이렇게 해서 담장공사는 기와 이는 것만 남겨두고 거의 끝났다. 일기 A₁₂₃에는 “豆樂, 蓋瓦南牆, 建闊柱以廣之, 其高自平地, 爲一男子長有半餘矣, 牆內寬闊, 可鋪木綿, 荏子, 而列醬甕矣, 此夫人之計也”라 하여 6월 2일 豆樂이 남쪽 담장에 기와를 이었으며, 이날 闊柱를 세워 담장안을 넓고 평활하게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담장높이는 평지로부터 남자키의 한 길 반정도였으며 담장안은 넓고 평활하여 木綿과 가지를 심을만하고 장독을 나란히 들만 하였다고 했다. 이같이 5월 20일 시작된 담장공사는 6월 2일경 대강 마무리되었다.

6) 播瓦 및 運瓦

1) 播瓦

본격적인 播瓦는 丙子 1월 26일 瓦工 6인이 大島洞에 瓦幕을 짓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A₃₈) 이후 기와를 제작하는 일은 순조롭게 진척되어 瓦

乙亥(선조 8년, 1575) 10월 30일	李貞秀가 내년 봄 燔瓦에 드는 땀나무를 주기로 약속함. (A ₅)
丙子(선조 9년, 1576) 1월 21일	瓦工 徐漢弼을 불러와 모래부터 일하기로 약속함. (A ₃₄)
1월 26일	瓦工 6인이 大島洞에 瓦幕을 짓기 시작함. (A ₃₈)
2월 10일	役夫 36인을 모아 잔흙을 이기다. (A ₅₁)
2월 23일	기와 8누리를 만들어 가마에서 넣다. (A ₆₁)
3월 3일	한번에 3눌의 기와를 번와할 수 있다고 함. 오늘 燔瓦한 기와가 3누리 30장이다. (A ₆₇)
3월 4일	오늘까지 기와가마에서 실어 온 기와가 210장이다. (A ₆₈)
3월 5일	우리집 소와 다른 집의 소를 빌려 모두 1,284장의 기와를 실어옴. (A ₆₉)
3월 7일	玉泉寺 僧 70명을 불러 잔흙을 이기도록 하다. 오늘 이긴 잔흙이 네 가마이다. (A ₇₀)
3월 9일	燔瓦와 잔흙 이기는 일을 중간 정도 마침. (A ₇₁)
3월 13일	오늘 구워낸 기와가 2積 890장 이고, 어제 실어온 300장과 합하면 3적 190장이 된다. (A ₇₃)
3월 22일	기와가마에 쓸 땀나무 23株를 宋海完의 산에서 얻다. (A ₈₁)
3월 26일	기와가마에서 기와 3누리 138장을 구워내다. (A ₈₄)
3월 28일	사람과 소·말을 빌어 기와를 운반했는데, 15匹이 6번 왕래하며 기와 2積 23장을 실어오다. (A ₈₅)
3월 29일	밭사람들이 기와 세 바리를 실어오다. 한번에 기와 47장씩을 운반함. (A ₈₆)
4월 3일	李良秀 등이 기와 굽는데 쓸 땀나무 50條를 보내주다. (A ₈₇)
4월 4일	이날 구워낸 기와가 3積 134장 임. 암막새 기와 114장을 먼저 실어 오다. (A ₈₈)
4월 10일	기와 굽는데 쓸 장작(땀감) 26株를 구하다. (A ₉₂)
4월 11일	奴가 羅州에 사는 蓋匠 崔莫山을 데리고 오다. (A ₉₃)
4월 12일	戶內人 등 20여 명이 기와 이는 일과 땅 파고, 잔흙 이기는 일에 동원되다. 蓋匠 崔莫山은 主大廳을, 官奴 豆樂은 樓채와 庫채에 기와를 이다. (A ₉₄)
4월 13일	계속해서 기와를 이다. 기와가마에서 다섯 번째 구운 기와 3積 310장을 들어내다. 종이 지난번 구운 기와 94장을 지고 오다. (A ₉₅)
4월 14일	蓋匠 豆樂이 庫채 이는 것을 대강 마치고, 東쪽 邊 및 冊房에 기와 이는 일을 蓋匠 崔莫山에게 양보하다. (A ₉₆)
4월 16일	豆樂이 冊房의 기와를 다 뒀다. 기와틀로 기와 만드는 일을 끝마침. (A ₉₇)
4월 17일	빌린 소 13隻으로 기와 296장을 운반해 오다. 추가로 기와 20장을 운반하다. (A ₉₈)
4월 21일	蓋匠 崔莫山이 9일간에 걸쳐 (主)大廳 기와 이는 일을 마치다. 이때 일한 人夫가 백 수십 여명이다. (A ₁₀₁)
4월 25일	오늘 옮긴 기와가 모두 1누리 700장이다. 기와 굽는 일을 끝마치다. (A ₁₀₄)
4월 27일	(潭陽)府使가 우리집 부근 백성들에게 관청에 내야 할 땀감을 면제해 주고 기와를 나르도록 함. 아침에 기와 400장을 옮겨오다. 芒種날 세어보니 기와가마에 남아 있는 기와가 8누리에서 50장이 모자람. (A ₁₀₅)
5월 11일	기와가마에 남아 있는 기와가 모두 7누리 690장이다. 먼저 50장을 실어오다. (A ₁₁₂)
5월 13일	昌平(縣)에서 還上하는 사람들을 보내 기와 1적을 실어오게 함. (A ₁₁₁)
6월 1일	기와가마에 숯키와 1누리 400장과 암키와 3누리 350장이 남아 있음. 金部將에게 1누리 750장을 갚아야 함. (A ₁₂₂)
6월 16일	동네사람 29명이 소 한 마리씩을 물고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와 3,544장을 운반하다. (A ₁₂₅)

표 2 燔瓦 및 運瓦

幕을 짓고 한 달 보름만인 3월 9일 기와 굽고 잔흙 이기는 일을 중간 정도 마쳤으며(A₇₁) 燔瓦하는 일을 모두 끝마친 것은 4월 25일이었다. (A₁₀₄, 표 2. 참조)

건축주 柳希春은 공사 초기 필요한 기와 수량을 약 20餘積으로 추산하고, 이를 현지에서 燔瓦하여 客廳(新大廳) 및 자녀들이 거처하는 건물을 이를 계획을 수립했다. (A₂₉) 이 계획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기와를 현지에서 제작 조달하기로 하고 徐漢弼을 비롯 6명의 瓦工에게 燔瓦하는 일을 전담시켰다. 燔瓦前 기와가마는 마땅히 두 굴을 만들어야 하며, 그중 하나는 2누리(訥¹⁴)의 기와를 구워낼 수 있는 규모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A₄₄) 그러나 실제 사용된 기와가마는 한번에 3누리의 기와를 구워낼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한 것보다 규모가 큰 것이었다. (A₆₇)

기와 제작에는 瓦工 뿐만 아니라 기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잔흙을 채취하고 이기는데 많은 役夫가 필요했다. 그래서 건축주 柳希春은 潭陽府使의 허락을 얻어 龍泉¹⁵, 玉泉 두 절의 僧을 번와하는데 동원하고자 했다. (A₆) 일기는 潭陽府使가 行下한 畚谷¹⁶·大谷¹⁷의 마을사람들 및 家奴, 役夫 36명, 玉泉寺 僧 70명, 戶內人 등이 잔흙을 파고 이기는 일에 두루 동원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A₃₉, 42, 51, 70, 94)

瓦工과 役夫의 동원의외에도 기와를 굽기위해서

- 14) 누리(訥)와 積은 모두 기와 數量을 세는 단위로 1, 000장의 기와를 말한다. 訥로 표기한 것은 일기 A₄₄, 61, 67, 84, 102, 112, 122에서 보이는데, 대개 기와틀로 기와를 만들어 구워내기 전 상태의 기와를 세는 단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積으로 표기한 것은 일기 A₇₈, 85, 88, 95, 113에서 보이며 주로 번와한 완제품의 기와를 세는 단위로 쓰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별없이 혼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엄격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15) 이절은 潭陽府 秋月山에 있던 절로 보인다. (민족문화추진회, 『알책』, p. 156.)
- 16) 潭陽府에서 남쪽에 위치하며 처음이 5리이고 끝이 15리이다. (민족문화추진회, 『알책』, p. 610.)
- 17) 潭陽府 남쪽으로 처음이 20리이고 끝이 30리이다. (민족문화추진회, 『알책』, p. 160.)

는 재료가 되는 양질의 잔흙을 찾아 굴토하는 일과 가마에 쓸 땀감의 확보가 중요했다. 잔흙은 공사현장 인근 마을(畚谷·大谷) 주변에서 채취되었으며 그 품질은 매우 좋았다. (A₄₂) 번와에 사용된 땀감은 인근에 사는 士大夫인 세 李氏가 대부분을(A₉, 65, 67, 103), 그리고 宋海完이 일부를 제공했다(A₈₁). 이밖에 기와틀로 기와를 만들 때 쓰이는 삼베는 州判官¹⁸) 任應龍이 보낸 麗布 7端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₄₆)

燔瓦한 기와 數는 2월 23일에 8누리의 기와를 가마에 넣는 것을 시작으로 3월 13일에 2積 890장·3월 26일에 3누리 138장·4월 4일에 3積 134장·4월 13일에 3積 310장 등 모두 다섯번에 걸쳐 20,502장(20積 502장)의 기와를 燔瓦했다. (표 2 참조)

2) 運瓦

燔瓦한 기와를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일은 3월 4일 쯤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날까지 운반해온 기와가 210장이었음을 일기에 기록하였다. (A₆₈) 이후 기와 운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소와 말이 끄는 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 (A₆₉, 85, 86, 98, 125) 여기에는 本家の 소와 말 그리고 수레는 물론 인근 士大夫家 그리고 동네 庶人들의 그것까지도 동원되었다.

뿐만아니라 潭陽府使가 공사현장 부근 백성들에게 관청에 내야할 땀감을 면제해주고 대신 기와를 운반토록 한 것은 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A₁₀₄, 105, 109) 며칠후에도 潭陽府使는 기와 운반할 役夫를 각10丈씩 증원시키고 있는데, 이들 역시 還上할 나무를 면제받고 기와 운반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A₁₀₉) 또한 인접한 昌平縣에서도 還上하는 사람을 보내 기와 1積을 운반토록 하기도 했다. (A₁₁₃) 이와같이 燔瓦 및 기와 운반에 각 마을 役夫를 무리하게 징발 동원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일기 A₆₆에 “余以府使稊庫蓋瓦, 分徵於民間, 駭怪聽聞, 故簡通止之, 府使之答, 將言將疑, 令我更量示教, 余乃

18) 判官은 監營·留守營 및 큰 고을에 둔 벼슬로 종5품 관이다. (金在得, 『古文獻用語解例』, 배영사, 1983, p.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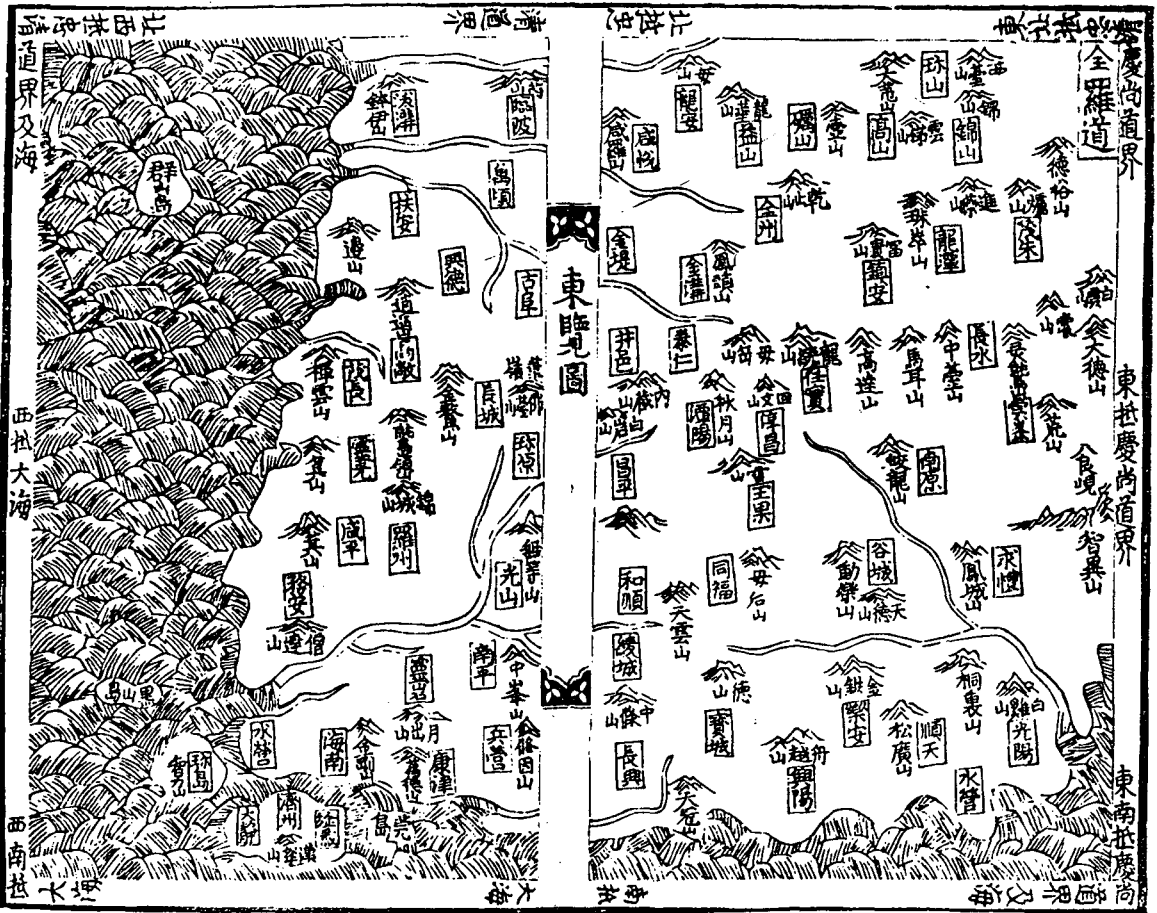


그림1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全羅道 地圖에 보이는 담양 주위의 각 군현

更答”라고 한것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柳希春이 강제로 기와를 추렴하고 민간에 나누어 징발했다는 괴상한 소문에 대해 편지로 潭陽府使에게 해명한 내용이다. 民間에서 많은 役夫를 무리하게 징발 동원한 결과 발생한 부작용이었다.

지난 3월 4일 경 시작된 기와 운반은 3개월 후인 6월 16일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6월 16일이 되면 播瓦한 기와 중 金喜(部將)에게 갚아야 할 기와 1,750장만 기와가마옆에 쌓아두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운반되었다. (A₁₂₅) 播瓦 및 運瓦 내역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A₆₈, 69, 73, 85, 86, 88, 95, 98, 104, 105, 112, 113, 122, 125)

4. 건축자재의 조달

(1) 木材의 需給

이 공사에 사용된 대부분 목재는 乙亥(선조 8년, 1575) 10월 14일에서 11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운반되었으며(A₈), 부족한 목재는 공사중인 兩班 士大夫들에게 구해 사용했다. (A₁₈, 20, 72, 83) 특히 필요한 椽木은 宋緣의 산에 木手와 종들을 보내 양질의 것을 직접 벌목해 오기도 하였다. (A₄₂, 43) 그리고 몇몇 친지(宋緣·柳洪源·柳剛壽·李穡·崔洵)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椽木(A₃₉), 修粧木(A₃₉, 40, 41, 42, 44, 45, 47), 板子 등을 보내어 공사가 순조롭게 수행되도록 도와주었다(표 3 참조). 이것으로도 부족한 재목 특히

乙亥(선조 8년, 1575)	
10월 29일	龍泉寺 僧 80명이 들보 2·衝椽 1·기둥 3개를 운반하다. (A ₂)
10월 28일	龍泉僧 96명과 玉泉僧 4명 도합 100명이 재목운반 거의 마침. (A ₃)
10월 30일	재목을 龍泉僧 18명이 운반함. (A ₅)
11월 3일	지난 10월 14일 재목운반을 시작하여 어제 20일만에 끝마침. (A ₈)
11월 11일	朴命星의 종 15명이 機械木을 다듬어 운반하다. (A ₁₆)
11월 13일	北樓 大廳에 쓸 高柱 및 曲梁 등을 金彦勗·蔡洵·宋連 등에게 구함. (A ₁₈)
11월 19일	興德縣監이 기둥 세우는 데 쓰는 中朴桂 23同을 보내음. (A ₂₀)
12월 10일	昌平 사람들이 판자 1장을 가지고 옴. (A ₂₅)
12월 12일	판자 1장이 또 들어옴. (A ₂₇)
丙子(선조 9년, 1576)	
1일 12일	昌平사람들이 판자 실어오는 일을 끝마침. (A ₃₁)
1일 22일	기와가마 짓는 데 쓸 서까래를 蔡洵·安聘壽에게 구하니 허락함. (A ₃₅)
1월 24일	尹牧使가 소 10마리로 藍川 재목을 실어옴. (A ₃₆)
2월 1일	木手が 軍人을 데리고 宋緣의 산에 가 椽木을 벌목하다. 송연이 내게 椽木 62雙을 기증함. (A ₄₂)
2월 2일	집안 종들이 86雙의 椽木을 벌목함. (A ₄₃)
2월 6일	宋緣이 椽木 20雙을 더 보내줌. (A ₄₇)
2월 15일	珍島郡守가 三村里軍으로 召川材木 운반하는 것을 허락함. (A ₅₅)
3월 10일	八升삼베 40尺으로 金彦勗이 벌목해 놓은 나무(40條)를 사다. (A ₇₂)
3월 25일	金彦勗에게 舊木 14條 빌림. (A ₈₃)

표 3 목재의 수급

修粧木 및 地放 등은 인근 金彦勗에게 細布를 주고 구입하였다. (A₇₀, 72)

목재 운반 및 조달은 官의 협조하에 이루어졌다. 일기의 “尹牧使가 소 10마리로 藍川 材木을 실어 오다 珍島에 연락하여 三村里 軍人으로 재목을 운반해 줄 것을 청하다”. (A₃₆) “珍島郡守 金緝이 三村里軍으로 召川 材木을 운반하도록 하다”. (A₅₅) 라는 등의 내용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興德縣監 金宗麗는 기둥 세우는 데 드는 中朴桂 23同을 보내주기도 했다. (A₂₀) 이 밖에도 昌平縣에서는 공사에 쓸 板子를 보내주었다. (A₂₅, 27, 31) 官이 징발한 役夫 뿐만아니라 많은 僧들도 재목운반에 동원되었는데 “龍川寺 僧 80명이 들보 2·衝椽1·기둥 3개를 운반하다” (A₂), “龍泉僧 95.6명과 玉泉僧 4명 도합 100명이 재목운반을 거의 마친다” (A₃), “羊峯에 두고 가져오지 못한 재목을 龍泉僧 18명이 끌고 오다” (A₅)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일기에 재목의 용도가 명기된 것은 高柱와 曲梁 (A₁₈)·大梁(A₂) 및 板子(A₂₅, 27, 31), 椽木(A₄₂, 47)·衝椽(A₂) 그리고 修粧木과 地放(A₇₀) 뿐이다. 이밖에 機械木이라든지(A₁₆) 中朴桂(A₂₀) 등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에 사용된 假設用 목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목재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條·雙·同 등이 사용되었다. 이중 「條」의 用例는 “洪源以修粧七十條板子木十條爲諸蓋一株裁作三四條故也”(A₄₄), “買金彦勗舊木四十條來”(A₇₆) “借舊木十四條于金彦勗”(A₈₃)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기둥·修粧木·板子 등의 재목을 세는 일반적인 단위로 보이나 A₄₄에서 큰 나무 1株로 3, 4條의 수장목 및 판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雙」은 주로 椽木을 세는데 쓰였는데 A₄₃에 “伐椽木泥八谷五十雙金守禮二十四雙一隻蔡深十二雙”이라 한 것에서 볼 수 있다. 椽木 二十四雙을 一隻이라 한 것이 흥미롭

다. 또한 「同」¹⁹⁾은 “送堅柱所用中朴桂二十三同”이라 하여 中朴桂의 수량을 나타내는데만 사용되었다.

목재 수급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材木 40條를 8升삼베 40尺을 주고 구입한(A₇₀, 72, 76) 내용인데, 이것은 당시 材木 1條 가격이 8升삼베 1尺과 동일한 가치로 통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공사에 사용된 대부분의 재목은 珍島 등지의 섬에서 벌목되어 인근 地方守丞이 징발한 役夫들에 의해 운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住宅建築에 地方守丞이 징발한 役夫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그리고 공사중 부족한 재목은 인근 兩班 士大夫의 산에서 직접 伐木하거나 親知들에게 구해 사용하였으며, 이것으로도 부족한 재목은 인근 士大夫 金彦勳에게 8升 삼베 40尺을 주고 사서 조달하였다.

(2) 石材需給

전통주택건축에서 石材는 주로 礎石·基壇·石階·구들·담장 등에 사용되었다. 이 공사에 사용된 石材 중 濶突石을 제외하고는 채취장소를 알 수 없으나 대개 인근에서 운반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礎石과 階石으로 사용된 대부분의 石材는 僮들에 의해 乙亥 11월 1일부터 9일 이후까지 연일 운반된 것으로 보인다.(A₈, 14)

일기에는 이러한 礎石과 階石외에 濶突石 채취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이 집에 사용된 온돌석은 昌平과 潭陽이 서로 접하는 三岐 銅店里에서 채취 운반되었다.(A₁₁₆) 이 濶突石은 石質이 좋았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하늘에서 만든 것처럼 깨어지지 않아 가이 쓸만하다.”라고 예찬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사용된 礎石과 階石은 주로 僮들이 운반 하였고, 濶突石은 昌平, 潭陽의 경계지역인 三岐 銅店里에서 산출되는 양질의 것을 실어와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 전통적인 나무계량 단위는 同·匹·丈·尺이었다. 丈는 통나무 1개를 말하며, 同은 1,000평에 해당하는 단위라고 한다. (신영훈, 『양책』, pp. 230-231.) 위 ‘中朴桂 23同’에서 同이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3) 鐵物 需給

전통주택에 사용되는 철물들은 부재를 서로 연결하는 쇠못과 창호를 치장하는데 보이는 쇠장석 등이 대부분이다. 이 공사에 쓰인 많은 철물들 중 각종 쇠못과 쇠톱 등은 所²⁰⁾와 全羅左水營에서 제작하여 보내온 것이며, 이밖의 것은 鐵片을 현장이나 인근 대장간에서 가공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奴 石丁이 쇠못과 철판(A₁₀)을 所로부터 보내왔고, 左道水使도 衝椽釘 3·용마루 박이못 10·박공못 36·부연머리 박이못120·부연꼬리 박이못 120·평고대 못 310·연합못 315 등의 각종 쇠못과 창에 사용되는 樞鐵·排目 등을 보내 공사에 사용토록 했다.(A₂₀, 24)

이밖에도 契樹察訪²¹⁾이 소시랑 10枚(A₃₃), 同福縣監²²⁾이 正鐵²³⁾12斤(A₆₄) 및 20斤(A₁₂₇) 그리고 光州에서 소시랑 7개(A₆₉)를 각각 보내어 필요한 鐵物을 만들어 사용토록 했다. 이것으로 쇠못은 물론 창호에 들어가는 돌쩌귀·비너장·들쇠·문고리·배목·바탕쇠 등의 쇠장석을 공사현장에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기에 대장장이가 연철사 사용하는 상당량의 炭(炭)에 대해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昌平縣監이 탄 1석을 보내왔으며(A₆) 이는 대장장이가 正鐵을 연철하여 각종 치장철물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량의 탄 수급내역을 일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기에는 潭陽府使가 炭 3石(A₃₅)과 2石(A₃₉), 昌平縣監이 炭 1石(A₄₉),

20) 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金·銀·銅·鐵·絲·紙·陶器·墨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수기관으로 金所·銀所·鐵所 등의 구별이 있었다고 한다. (姜萬吉, 『朝鮮時代 商工業史 研究』, 한길사, 1984, p. 23.)

21) 南原都護府의 북쪽 40리에 있는 契樹驛의 察訪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22) 同福縣은 동쪽으로 順天府와 16리, 서쪽으로 昌平縣과 21리, 남쪽으로 和順縣과 24리에 위치한다.

23) 正鐵은 강철과 함께 打造하는 원료로 쓰였다. 또 正鐵은 水鐵匠이 구워낸 철물을 精鍊한 것으로 精鐵이라고도 했다. 이를 다시 풀무에 달린 도가니에 넣어 정제하면 精精鐵이 되는데, 이를 강철이라고도 했다.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하당, 1983, P. 238.)

乙亥(선조 8년, 1575) 11월 6일	昌平縣監이 돛자리 4장, 술담는 쌀 20두, 누룩 2동을 보내옴. (A ₁₁)
11월 15일	羅州判官 尹思欽이 말린 송어 10미, 조기 5속, 참기름 1두, 소금 20두를 보내옴(A ₁₉)
12월 1일	左道水使가 전복 1첩, 백문어 20미, 쌀새우 4두, 염전어 200미, 생대구 5미, 생낙지 5속, 생문어 1속, 굴조개 1두를 보내오다. (A ₂₄)
丙子(선조 9년, 1576) 2월 8일	昌平縣監이 탄 1石, 자리 1장을 보내옴(A ₄₉)
3월 3일	潭陽府使가 술 담을 쌀 1石, 누룩 2同을 보내옴(A ₆₇)
3월 14일	興德縣監 ²⁷⁾ 이 된장 1石, 소금 10斗, 염청어 5束, 염조기 10束 및 五升무명 5匹, 각종 과자 등을 보내옴(A ₇₄)
5월 3일	古阜郡守가 쌀과 콩 각 1石씩을 보내오다(A ₁₀₈)

표 4 각 地方守令들이 보내온 營造扶助

玉果(縣)²⁴⁾에서 炭 4石(A₅₇) 등 인근 官에서 보내온 炭이 모두 10石 정도였다. 이밖에도 기와가 마에서 炭 13石을 가져왔음을 적고 있다. 이것으로 볼때 대장간을 공사현장 가까이 만들고 여기에서 대장장이가 각 처에서 보내온 철을 가지고 집을 치장하는 각종 粧鐵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光州牧使는 제작된 修粧鐵物로 보이는 粧鐵 44조를(A₁₂₆) 보내오기도 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左道水使²⁵⁾, 光州牧使, 焚樹察訪 등 주변 地方守令들이 공사에 필요한 각종 鐵物을 공급 해주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官에 의한 役夫 동원과 결부시켜 고찰해볼때 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建築主의 사회적 지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는지는 더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4) 기타자재 조달 및 식품류의 扶助

위에서 언급한 자재 외에도 靚 등이 사용되었

다. 짙은 土壁을 칠때 진흙에 썰어 넣어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공사에는 昌平縣監이 보낸 靚 80束(A₈₂)이 사용되었다.

이 공사를 돕기 위해 監司 이하 주변 각 地方守令들이 보낸 쌀을 비롯한 각종 식품류 扶助는 공사수행에 큰 보탬이 되었다. 또한 宣祖가 건축주의 곤궁한 살림을 고려하여 食物을 보내주라는 교지를 내리기도 했다. (A₁₃)

全羅監司가 柳希春의 營造 소식을 듣고 10개 郡縣에 명을 내려 각각 白米 1石씩을 보내 돕도록 하여 (A₅₄) 모두 10石이 들어왔다. (A₅₇) 이는 監司의 명을 받들어 昌平縣(A₄₉), 潭陽府(A₅₄), 淳昌郡²⁶⁾(A₅₇) 등의 地方守令들이 각 白米 1石씩을 보낸 것이다. 이밖에도 인근 지방수령들이 營造費用을 돕기위해 보내온 物目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昌平·羅州·潭陽·興德·古阜 등의 地方守令 및 左道水使가 영조비용에 보태라며 쌀과 콩 등의 곡식과 조기·전복·문어·소금 등의 각종 해산물을 보내왔다. 여기

24) 玉果縣은 동으로 南原府와 20里, 남으로는 同福縣과 26里, 谷城縣과 21里, 서쪽으로 潭陽府와 11里, 북으로 淳昌郡과 11里이다.

25) 여기서 말하는 左道水使는 全羅左水營의 水使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全羅左水營은 1479년(성종 10) 이후 順天에 두었다가 1894년에 폐지되었다. (李弘植, 『國史大事典』, 삼영출판사, 1984, P. 1452.)

26) 淳昌郡은 동쪽으로 南原까지 23里, 남쪽으로 玉果縣까지 18里, 서쪽으로 潭陽府까지 19里, 북쪽으로 任實縣까지 25里이다. (민족문화추진회, 『國譯新增東國輿地勝覽』, 1989, pp161-162.)

27) 興德縣은 동쪽으로 古阜郡까지 16里, 扶安縣까지 13里, 남쪽으로 高敞縣까지 16里이다.

에는 돛자리·탄·누룩·五升무명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五升무명은 당시 화폐로 일반에 통용되던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볼때 영조에 종사한 役夫와 匠人들을 먹일 상당량의 양식과 각종 海産物 등의 副食類까지도 인근 官衙에서 扶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역부 징발과 각종 건축 자재 수급에 힘이 일한 기여를 한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5. 공사 종사자

(1) 工匠

1) 木手

이 공사에 종사한 木手는 大木 智雲을 비롯 深守·朱希成·尹伊金 등 네 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₇₀) 그러나 이들 네 명의 목수가 각기 어떤 일을 분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木手 智雲을 일기에서 匠首(A₁₀) 또는 大木(A₇₀)이라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이 공사의 전체 工程과 工役을 총괄한 책임자로 생각되며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僧匠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大木 智雲이 건축주 柳希春과 대청 柱高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며(A₁₀), 또는 필요한 재목을 구하러 다니기도하는(A₇₀) 등 전 工程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들 목수조직은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은 私匠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건축주 柳希春이 “余與自秋 共觀新大廳結構, 堅緻得中(丙子 正月 27日)”라 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專業 木手が 아닌 즉 農業과 木手 일을 겸영하는 匠人들 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A₇₀에 “씨 뿌리기를 마치고(7일 후) 3월 보름날 다시 와 中間廩을 修粧하겠으며 나머지 두 木手 深守와 朱希成 두 사람은 남아서 中間廩을 修粧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이들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

지는 기록이 없어 살필 수 없다.

이번 工役에 종사한 목수 네 사람 중 智雲을 제외한 세사람 모두 私匠이라는 사실은 건축주가 己巳年(선조 2년, 1569) 海南에 47間の 건물을 營造할 당시 종사한 木手들이 僧匠과 官匠이었다는 것과²⁹⁾ 다른 점이라 하겠다.

2) 瓦工

瓦工은 瓦匠의 다른 표현으로, 기와를 굽는 匠人을 말한다. 客廳 造營에서 瓦工으로 종사한 사람은 徐漢弼을 비롯 모두 6명으로(A₃₈) 나머지 瓦工 5명의 이름과 신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들 중 徐漢弼은 潭陽 秋洞에 사는 瓦工으로 申鴻이란 자가 우수한 匠人으로 추천하여(A₃₄) 이 공사에서 기와를 만들고 구워내는 일을 전담하였다. 그는 또한 李邦柱라는 자의 기와를 만들 솜씨가 인정되어 건축주가 안심하고 그를 불러 번와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다. (A₃₇) 이들 瓦工이 인근 大島洞에 瓦幕을 짓는 일로(A₃₈) 부터 燻瓦하는 일을 전담한 것으로 보이며, 단 기와를 제작하는데 있어 잔흙을 파고 운반하고, 이기는 등의 雜役은 대부분 官에서 징발해 보낸 役夫나(A_{38, 39}) 僧(A₆₉) 및 집안 奴들이(A_{42, 43}) 수행했다. (표 2 참조) 燻瓦하기 前 건축주 柳希春은 기와 20餘積을 구워 이것으로 새로 짓는 大廳(客廳) 및 자녀들이 거처하는 건물을 덮을 계획을 세웠다. (A₂₉) 이에 따라 燻瓦한 기와 수량이 계획보다 불과 368장이 더 많은 20積 368장이란 사실은(A_{61, 67, 73, 84, 88, 95}) 당초 번와 계획과 실행이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또 암막새 기와 114장을 번와했다는(A₈₈)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공사에 막새기와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蓋匠 및 牆工

蓋匠은 기와로 지붕을 이는 匠人으로 이 공사에 종사한 사람은 羅州사람 崔莫山과 官奴 豆樂

28) 朝鮮王朝 地方工匠은 前期에는 대체로 농업겸영이 일반화하고 있었으며 이런 현상은 後期에 넘어가서도

변화하지 않았다. (姜萬吉, 『朝鮮時代 商工業史 研究』, 한길사, 1984, pp. 44-48)

29) 李鎬冽, 『朝鮮前期 住宅史研究』, 영남대 박사논문, 1992, p. 182.

두 사람이었다. (A₉₄) 이 중 蓋匠 崔莫山은 主大廳을, 官奴인 豆樂은 각각 樓榭(樓榭)와 古榭(庫榭)를 맡아 이었다. (A₉₄, 95, 96, 97)

蓋匠 崔莫山에 대해 “崔莫山以蓋匠之良”(A₉₂)이라 평한 것으로 보아 그는 지명도 높은 우수한 蓋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그의 지위를 고려하여 종을 시켜 부를때 부채를 선물로 주기도 했으며(A₇₉), 蓋匠 崔莫山이 기와 이는 일을 마치고 돌아갈때 그를 말에 태우고 종을 딸려 나주까지 호송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A₁₀₂) 이같은 배려는 다른 匠人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牆工은 담을 쌓는 장인이다. 이 공사에서 牆工으로 종사한 자는 전술한 蓋匠 官奴 豆樂이었다. 豆樂은 종들을 데리고 기존의 남쪽 담장을 철거하고 물려 쌓아 넓히는 일(A₁₁₇, 118, 119, 120, 121)과 남쪽 담장에 기와를 이는 일(A₁₂₃)을 하였다.

이렇게 볼때 이번 客廳 공사에는 私匠으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던 崔莫山 및 官奴 豆樂이 蓋匠으로 종사했으며, 豆樂은 뒤에 牆工으로도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2) 監役人과 役夫

1) 監役人

木手·瓦工·蓋匠·牆工등의 모든 匠人과 役夫등의 모든 공사 종사자들을 감독하고 작업 지시한 監役人은 邊澗·宋震·宋連·柳光先·金蘭玉·柳景濂 등이었다. 이들 감역인 중에서 공사 초기 地正, 돌운반·定礎 등의 작업을 교대로 감독한 자는 邊澗(A₄), 宋震(A₁₃), 宋連(A₁₃) 등이다. 특히 宋震은 地正과 修粧工事(A₃₂)의 감역 뿐만 아니라 인근 官衙 府使에게 건축주의 役夫 징발 요구를 傳하고 역부를 얻어 오기도 한다(A₃₈, 39).

기와를 만드는 주재료인 잔흙을 파고, 이를 이기는 등의 일은 대체로 光先(A₄₂), 金蘭玉(A₅₀, 51)이 맡아 보았으며, 기와 굽는 일은 柳景濂(A₈₇), 金蘭玉(A₇₃), 宋連(A₁₂₂) 등이 監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뿐만 아니라 李貞秀·李良秀 두 사람은 樺瓦工事を 건축주와 事前에 의논하며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A₉, 35), 기와가마에 사용할 땀감을 보내주기도(A₉, 87, 103) 한다.

위 監役人 중 柳景濂은 건축주 柳希春의 아들이고, 光先은 건축주의 손자이며, 또 邊澗·宋震은 건축주의 가까운 친인척이었다. 이들은 모두 지배계층 兩班家門의 출신자들로 비전문 감역인이었다고 보여지며, 그래서 기술적인 자문과 조언보다는 주로 인력수급과 관리를 맡아 본 것으로 생각된다.

2) 공사에 종사한 役夫

이 공사에 종사한 役夫는 僧·戶內(軍)人·官에서 징발해 보낸 三村里 軍人과 역부 및 私奴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었다. 먼저 工役에 동원된 僧들은 터 고르는 일(A₄)·地正(A₁₃)·석재운반(A₁₄)·서까래 다듬기(A₅₃)·번와(A₆, 70)·재목운반(A₂, 3, 5) 등 약간의 건축경험과 기술이 요구되는 일에 종사하였다. 여기에 동원된 僧들은 모두 淸冷寺(A₄)·龍泉寺(A₂, 3, 5, 6)·玉泉寺(A₃, 6, 70)·瑞峯寺(A₁₃, 14)·淸涼寺(A₅₃) 등에 사찰 소속이며, 일기에 기록된 연인원만 347명이나 되는 많은 인력이었다.

이들과 함께 戶內軍人 또는 戶內人들도 工役에 동원되었는데, 戶內軍人 17명이 땅을 다지며 지정하는 일을 하거나(A₁₃) 또는 지붕에 기와를 일때 기와와 흙을 운반하는 일을 맡아 했다.(A₉₄) 또한 이 지역 兩班 士大夫의 私奴들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朴命星의 家奴 15명이 機械木을 다듬어 운반하고(A₁₆), 집안 家奴들이 기와 만들 잔흙을 파거나(A₄₂), 서까래감 伐木(A₄₃), 기와운반(A₉₅), 담장 철거와 쌓기(A₄₂) 등의 일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리고 官에서 징발해 보낸 많은 역부들로는 珍島의 三村里軍人(A₃₆, 55)을 비롯하여 인근 마을 주민(A₁₀₂, 105, 109), 昌平縣 사람(A₂₅, 31)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地正(A₁₃), 材木運搬(A₃₁, 36, 38), 椽木벌목(A₄₂), 잔흙을 이기는 일(A₆, 38), 기와운반(A₁₀₄, 105, 109, 113) 등의 일을 담당했는데, 이들 일은 다른 것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들도 官에 의뢰해 많은 役夫를 동원하지 않고는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전술한 人力외에도 인근 친인척들의 소와 인력을 빌어 기와를 운반하거나(A₆₉, 85), 동네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와 人力을 빌어 기와를 운반하기도(A₁₂₅) 했다.

이같은 官에 의한 역부 동원은 당시 徭役制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徭役은 役制에 포함되는 수취제도의 하나로서, 前近代의 국가가 필요에 따라 개별 民戶의 노동력을, 無償으로 정기·부정기적으로 징발하는 제도로, 지배기구·지배층이 民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요역제가 적용될 수 있었다. 15, 16세기 郡縣制의 지배질서 아래서 守丞을 통한 지방통제는 在地 兩班 地主層과의 타협·협조 아래서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요역제 운영도 이러한 지배기구의 속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在地 兩班 地主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시기 요역제 운영에 있어서 差役의 기준은 田結에 있었으며 '田結出夫'의 원칙에 따라³⁰⁾ 징발된 요역의 役夫는 곧 烟戶軍이었다. 당시의 요역제는 이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개별 民戶로부터 烟戶軍을 징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³¹⁾ 이것으로 볼때 이 工役에는 요역제에 의해 징발된 個別 民戶의 烟戶軍이 동원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때 이번 工役에서는 현장 인근 여러 寺刹의 僧 및 官에서 징발한 役夫들이 가장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이밖에 兩班 士大夫들의 私奴 및 戶內(軍)人 등도 役夫로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6. 工匠들의 報酬

(1) 木手의 報酬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축주는 木手와 瓦工에게 일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이는 賃勞動이

보편화된 조선후기의 노동임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기꺼이 일해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일기 A₇₀, A₇₅, A₁₀₄에 이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일기 A₇₀은 “---大木智雲及一匠, 歸視稻田, 以中米二十斗, 分給四匠, 又以白米三斗賞智雲---”이라 하여 大木 등 木手 4인에게 中米 20말로 각 5말씩 나누어 주고 특히 大木에게는 賞으로 白米 3말을 더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때는 中厥의 수장공사를 시작하기 전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며칠후의 일기 A₇₅에도 보수를 준 내용이 있는데, 즉 “會享四木手, 以報施五升木八疋都給, 更以一疋, 賞大木智雲---木手前日山役報施別給外, 成造報施, 通計給五升木二十七匹, 中米二十斗, 上匠賞加白米三斗, 凡三十二匹矣---”라 한 것이다. 이때는 목수가 해야할 목구조를 결구하는 일이 끝나고 지붕에 기와 잇는 일만 남겨두고 있을때 였다. 木手 4인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都給에 대한 報酬로 五升 무명 8필을 주어 각자 2필씩 갖도록하고, 大木 智雲에게는 賞으로 1필을 더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山役한 보수의에 집짓는데 일한 보수를 별도로 주었는데, 모두 합해 五升무명 27필과 中米 20말이며, 上匠(大木智雲)에게는 白米 3말을 더 주었으며 이것들을 무명으로 환산하면 32필에 해당되었다.

이렇게 볼때 공사에 참여한 木手 1인당 五升무명 6.5匹과 中米 5말씩 지급되었으며, 大木 智雲에게는 이것외에 賞으로 白米 3말과 五升무명 1필이 더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무명으로 환산하면 대략 목수 1인당 약 7.7필, 대목에게 약 9필의 五升무명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2) 瓦工의 보수

播瓦하는 일을 맡아 한 瓦工 6인에게 보수를 준 내용이 일기 A₇₅, A₁₀₄에 들어 있다. 이는 瓦工들이 병자 1월 26일 瓦幕을 짓고 播瓦하는 일을 시작하여 만 3개월 후인 4월 25일까지 일한 보수로 지급된 것이다. 일기 A₇₅는 3월중 와공에게 보수를 지급한 내용으로 “---瓦工又給報施木六疋.”이라 하여 보수로 무명 6필을 지급하여

30) 役民式의 규정은 『經國大典』에 田地 8結마다 1명의 役夫를 差出할 수 있되, 사역기간은 年間 6일을 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이 설정되어 있었다. (『經國大典』, 戶典, 徭賦條)

31) 尹用出, 「17, 18세기 徭役制의 변동과 募立制」, 서울대 박사논문, 1991, pp. 15-35.

각자 1필씩 갖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燔瓦를 끝마치고 보수를 지금한 내용이 일기 A₁₀₄에 있다. “--- 燔瓦事畢, 會瓦工六人, 饗酒肉而給報施, 通計予五升木三十匹并糧太.” 라 하여 燔瓦를 끝마치고 瓦工 6인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있다. 그리고 이날까지 瓦工 6인에게 보수로 준 것이 모두 五升무명 30필 및 양식과 콩이었다.

行廊을 건축한 戊辰年 5월 4일 일기에 “--- 瓦匠手功, 一千丈爲一積, 一積當給三四升木綿四匹, 十積則手功四十四匹---”라 하여 당시 瓦工이 받는 手功이 일반적으로 기와 1積당 3,4升무명 4匹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이번 客廳공사에 燔瓦한 기와 수량이 모두 20 여적이었으므로 瓦工에게 手功으로 무려 무명 80여필이 지급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건축주는 지급해야할 수공의 반도 안되는 불과 五升무명 30필과 약간의 양식을 주고 있을 뿐이다. 이는 건축주의 지나친 횡포라 하겠다.

이렇게 볼때 3개월간 일한 보수로 瓦工 1인당 五升무명 5필 및 일정량의 양식과 콩이 몇차례 나눠 지급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瓦工들의 手功에 비해 매우 적은 보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瓦工들의 手功이 作業日數가 아닌 기와수량 즉 1積(1,000장)을 단위로 결정됨을 알았다.

7. 建築風俗 및 俗信

(1) 建築風俗

이 일기에는 당시의 건축풍속을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건축주 柳希春은 일찍부터 학문한 仕宦으로서 건축 당시 開基 및 上樑 때마다 周易의 卦象을 풀이하며 그날은 물론 앞날의 길흉화복을 점치기도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일기 A₁₂, A₂₂, A₃₉에 있다. 일기 A₁₂에는 “--- 追占去十月二十五日卯時始開基也, 得☰☷之頤, 用离生體變震生离, 賁, 文明之卦, 頤安養之兆, 其爲福祉, 孰大焉. ---”라 하여 주역으로 開基日時를 擇日하고 있다. 이 때 나온 賁卦는 文明, 頤卦는 安養을 상징하여 매

우 福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일기 A₂₂는 上樑祭에 관한 내용으로 어느 건물에 대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自去夜大雪, 辰末, 匠氏爲上梁祭, 五方香火直上, 無少風颺之動, 吉兆也, 巳時初, 雪止日照, 恰立柱六箇, 亦吉兆也. --- 今日丙辰, 而巳時又是明輔星, 筮得家人之益, 體巽乃相得時, 而互坎生體, 變震比和, 吉兆也 --- 堅柱上梁之時, 得家人之益, 變震比和, 又得時---”라 한 것이다. 이것은 상량제를 올리던 날의 주역 卦象을 풀이한 것이다. 上樑할 때 家人의 益괘를 얻었는데 震괘가 변하고 比괘가 和하니 지금이 上樑하기 마땅한 때라는 설명이다.

이번 공사의 핵심 건물인 大廳(客廳) 上樑일에도 역시 周易의 卦象을 풀이하고 있다. 일기 A₃₉에 “--- 卯時, 木手上大廳之梁, --- 卯時乃黃道明輔星, 而占得小畜之中孚, 巽體得時, 可謂吉利矣. ---”라 한 것이다. 上樑한 卯時는 明輔星에 해당되어 小畜의 中孚라는 점괘를 얻은 즉 巽卦가 體가 되어 때를 만난 것이므로 길하고 이롭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開基일 및 上樑日은 周易으로 擇日했으며, 또 그날의 卦象을 풀이하여 건축후의 길흉을 점쳤음을 알 수 있다.

(2) 建築俗信

건축주 柳希春은 일기에서 당시의 여러가지 建築俗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먼저 上樑祭에 대한 것으로 위 일기 A₂₂에 辰時末에 목수들이 上樑祭를 지내기위해 다섯 방위에 쯤을 피웠는데, 약한 바람조차 불지않아吉한 조짐이었다는 것이다. 또 상량제를 지낸후에 눈이 그치고 마침 기둥 6개를 세우니 吉兆라고 했다.

당시 상량하는 날 눈이 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길조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일기 A₃₅에는 목수 卍伊금이 “서울에 처음 궁전을 上樑하던 날 눈이 내려 모두 吉兆라 했으며, 또 李邦柱라는 자는 집 상량일에 눈이 내려 후에 과거에 급제했고 이렇게 볼때 참관덕 上樑日에도 눈이 내리니 크게 길할 조짐”이라 말하고 있다. 또 이 일기(A₃₅)에서 柳希春은 스스로 “부인이 작년 겨울

開基할때 꿈에 해와 달이 대청에 있는 것을 보았다니 역시 큰 吉兆”라고 말한다.

이밖에도 꿈에 부엌 부뚜막에 불이 있는 것을 보는 것(A₆₀), 그리고 서까래가 집에 들어오는 꿈(A₁₁₁) 등도 길조로 여겨졌다.

또한 당시에는 담장을 고쳐 쌓는데도 擇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기 A₁₁₇에는 “--- 內牆宜退廓久矣, 今日, 乃壬子旬, 各神上天, 故修營.”이라 하여 오늘이 壬子일로 旬일로 各神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담장을 고쳐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開基하거나 上樑하는 날에 눈이 내리는 것을 吉兆로 여긴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도 부뚜막에 불이 있는 것, 서까래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도 역시 吉兆로 생각되었다. 또 담장을 고쳐 쌓는 일도 날을 가려 各神들이 하늘로 올라간 기간에 했던 것이다.

8. 일기에 나타난 溫突 수용과 住生活

(1) 溫突 수용

이 일기를 살펴보면 당시 地方 官衙 및 兩班 士大夫의 주택에 온돌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기 A₃₉에는 “--- 聞今月十三日, 監司(崔應龍)以巳時入海南, 脫笠掛房, 以紗帽出坐窗外, 忽見烟氣熏灼, 開戶視之, 則火從突孔鼠穴而出, 焰騰焚燒, 監司之笠, 已爲灰燼, 監司避坐大門, 令截毀大廳 --- 一半及西軒, 得全云.” 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류희춘이 全羅監司가 海南縣 관아에 당도하여 쉬고 있는 방에 난 작은 구들구멍으로 불기가 올라와 화재가 발생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다. 이것으로 16세기말 지방 官衙건물에도 온돌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兩班 士大夫 주택에도 온돌이 널리 사용되었음은 일기 A₃₉, A₁₁₁, A₁₁₄, A₁₂₀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중 A₃₉는 신축중인 客廳의 南邊 書室 2칸을 온돌방으로 시설했음을 보여준

다. 그리고 A₁₁₀은 이번 공사에서 구들을 놓을 溫突工을 구하는 내용이며, A₁₁₄는 溫突石을 채취할 장소를 물색하는 내용으로 당시 주택에 溫突이 자연스레 시설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工役에 참여인으로 활약한 宋震의 집 溫突房에 불이 나서 부인의 비단의복 여러벌을 태웠음을 일기 A₁₂₀에 “聞昨朝, 宋震室 溫突出火, 燒婦人段紗衣服數件, ---”고 기록하였다. 이상으로 16세기말 潭陽地方 兩班 士大夫주택에 온돌이 보급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住生活

당시 住生活의 일면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A₃₀, A₅₂, A₈₉ 등이 있다. 이중 A₃₀은 모직으로 만든 자리인 紅氈을 깔고 婚書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있는 날에는 방안에 紅氈을 펴고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기 A₅₂, A₈₉은 奉祭祀에 대한 것이다.

A₅₂에는 質明(어두운 새벽)에 斜廊廳에서 先夫人과 先公의 祭祀를 올렸는데, 이는 안채 대청이 좁아 넓은 마루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₈₉에도 曾祖 別侍衛 忌祭祀를 新大廳에서 지내라고 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당시 양반계층에서는 유교적 의례인 제사를 일반적으로 안채 마루에서 거행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斜廊廳 등에서도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9. 결론

지금까지 眉巖 柳希春의 개인 일기인 『眉巖日記草』에 나타난 16세기말 士大夫家の 客廳 造營時的 공사내용과 건축자재의 조달 및 공사 종사자 등을 살펴보았다. 극히 제한된 개인일기에 대한 고찰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몇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16세기말 집터의 선정에는 風水圖說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풍수설에 따라 집터의 길흉

을 판단해주는 地官으로는 相地僧이 활약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柳希春이 潭陽에 경영한 이 집은 丙午年(명종 원년, 1546)에 안채, 戊辰年(선조 원년, 1568) 봄에 行廊 13間, 丙子年(선조 9년, 1576) 봄에 客廳을 차례로 건축하여 전체적인 완공을 보았다. 이번에 지은 客廳은 正面 도리간 1間이 9尺, 側面 1間이 9尺, 柱高 9尺의 전체 규모 18間 접집으로 거기에는 마루 4간·방 2간·冊房·書室 등이 있었다. 그리고 客廳은 別棟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北樓에 접속되어 南向하여 건축된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客廳 造營은 乙亥 10월 3일 시작되어 다음해인 丙子 4월 2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공사는 먼저 10월 중순에서 11월 3일까지 20여일간에 걸친 목재운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건축은 乙亥(선조 8년, 1575) 10월 25일 開基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地正과 定礎를 한 다음 乙亥 11월 15일 최초로 立柱하고 11월 22일 上樑祭를 거행했다. 상당한후 곧장 기둥 上部架構를 시작하여 丙子 3월 7일 上部架構 공사를 끝나치고 일부 木手는 播種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으며, 남아 있는 목수는 수장공사를 시작했다. 播瓦工事は 丙子 1월 26일 大島洞에 瓦幕을 짓는 것으로 시작하여 4월 25일까지 약 20餘積의 기와를 구워냈으며, 運瓦는 3월 4일부터 6월 16일 까지 계속되었다. 지붕에 기와를 이는 공사는 丙子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안채 남쪽 담을 철거하고 새로 물려 쌓아 확장하는 담장공사를 丙子 5월 20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실시하여 客廳 건축 및 부대 공사를 모두 끝냈다.

넷째, 공사에 사용된 목재 중 기둥·들보·도리 등 구조재는 대부분 莞島, 珍島 등지의 섬에서 伐木되어 배와 수레를 이용 潭陽까지 운반되어 사용되었으며, 椽木 및 修粧木 등은 공사중에도 수시로 인근 親知의 산에서 직접 벌목하거나 親知들에게서 구해 사용했다. 각종 못과 창호철물 및 톱 등은 順天에 있는 全羅左水營 등에서 제작한 것을 가지고와 사용했으며, 이것으로 부족한 각종 鐵物은 鐵片을 구해 공사 현장에 대장간을 입

시로 만들어 거기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건축자재외에도 營造에 종사한 役夫와 匠人들을 먹일 상당량의 糧穀과 海産物을 비롯한 많은 副食類까지도 全羅道內 각 官衙에서 부조하였는데 이는 역부징발과 각종 건축자재 需給에 官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공사 종사자는 工匠과 監役人 및 役夫로 구분된다. 工匠으로는 木手·瓦工·蓋匠·牆工 등이 종사하였다. 먼저 工役에 종사한 木手는 僧匠으로 보이는 大木 智雲를 비롯하여 네 명으로 大木 智雲을 제외한 세 사람은 私匠으로 專業木手가 아닌 農業경영의 목수였다. 瓦工으로는 良工인 徐漢弼을 비롯하여 6명이 播瓦工事に 종사하였으며 3개월간에 20餘積의 기와를 번와했다. 蓋匠으로는 私匠인 羅州사람 崔莫山과 官奴 豆樂이 종사했다. 崔莫山은 지명도가 높은 우수한 蓋匠이었으며 官奴 豆樂은 뒤에 담을 쌓는 牆工으로도 일했다. 監役人들은 모두 건축주와 가까운 친인척들로 兩班家門의 출신자들로 기술적인 자문과 조언보다는 주로 인력수급과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공사에 종사한 역부는 담양 주위 寺刹의 僧·戶內(軍)人·官에서 징발한 役夫·私奴 그리고 인근주민들로 이들은 주로 地正·木材와 石材 運搬·椽木 伐木·잔흙을 파고 이기는 일·기와운반 등의 雜役을 했다. 특히 官에 의한 役夫동원은 조선전기 徭役制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地方守令이 개별 民戶로부터 烟戶軍을 징발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在地 兩班 地主層의 요구에 협조한 것이라 하겠다. 지배층인 在地 兩班 官吏의 住宅 建築에 徭役制에 의해 징발된 民戶의 烟戶軍이 동원되었음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여섯째, 이 공사에 종사한 木手와 瓦工에게는 일정 보수가 지급되었다. 목수 네 명에게는 1인당 五升무명 6.5필과 中米 5말씩 지급되었으며 大木 智雲에게는 이것외에 賞으로 白米 3말과 五升무명 1필을 더 주었다. 瓦工의 경우 1인당 五升무명 5필 및 얼마간의 糧食과 콩이 몇차례 나누어 지급되었으나 이는 당시 일반적인 瓦工들의 手功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이었다. 그리고 瓦工들의 手功이 作業日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와 1

積을 기준으로 결정됨을 알았다.

일곱째, 柳希春은 客廳 造營時 開基日과 上樑日 등을 周易으로 擇日했으며, 중요한 工程 때마다 周易의 卦象을 풀이하여 건축후의 길흉을 점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의 建築俗信에는 開基나 上樑하는 날 눈이 내리는 것이 吉兆로 여겨졌으며, 이밖에도 부뚜막에 불이 있는것, 서까래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도 역시 吉兆로 생각되었다. 또한 담장을 고쳐 쌓는 일도 날을 가려 各神들이 하늘로 올라간 기간에 했다.

여덟째, 일기의 기록으로 볼때 16세기말 全南地方 官衙와 士大夫家에는 이미 濫突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士大夫家에는 특별한 날에는 毛織으로 만든 자리(깔개)인 紅氈을 펴고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택내에 祠堂이 건축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던 시기로 보인다. 忌祭祀의 경우 대개 안채 마루에서 거행되었으며, 부득한 경우 斜廊廳에서도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A Study on the House of the Gentry (士大夫) in the late 16th Century

—Centering around Ryu, Hee-Choon's Diary(Miam-Ilgicho) —

Lee, Ho Yeol

(Mil-Yang Industri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In the study the documents in Ryu Hee-Choon's diary(Miam-Ilgicho) from Oct. 29th 1575 to Feb. 9th 1577, for Kaeg-Chung(客聽) are arranged and analyzed. Ryu, Hee-Choon(Miam) was a civil minister in the era of Myung-Jong to Sun-Jo of the Chosun dynasty. This study would be one of the basal material for actually inquiring into the character of houses for the gentry in the late 16th century. Above all, the significance of this is that it study could show the details of the architectural economy, the organization of architectural society and the process of the supply of architectural material at that time.

Craftsmen devoting themselves to this work are carpenters, artisans making roof tiles, roofers and artisans constructing walls. And the content that are craftsmen of monks(僧匠), artisans of commoners(私匠) and slaves belong to government(官奴) is noticeable thing. In this construction work, monks in temples of the region and labourers commandeered by the government office are mainly mobilized. Except of them, private slaves and commoners mobilized by government office also devoted themselves to this work. But, it required more research whether this aspect could be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construction work of the gentry in the late 16th century.

Architectural material, in the case of wood was cut and transported mostly from islands like Jin-do by labourers commandeered by the head officer of the region and monks. Superintendents seemed to come be non-specialists of noble families of the ruling class. So, it is thought that they managed mainly the manpower supply and administration. And some architectural ironworks, much provisions and marine products for labourers and craftsmen were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fice of the region. This could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above that government office of the region contributed to commandeering labourers and supplying architectural material in some degree.

Carpenters and roofers took wages that is, about 7.7 pils(匹) of cotton cloth for each carpenter and 5 pils of cotton cloth and some provisions for each roofer. This would be a noticeable thing for researching wages of craftsmen at that time